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b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0월 28일)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Kimchi'~ 찰칵, 자비심 '훈훈' 이웃을 위한 김치를 만드는 따뜻한 자비심 앞에 승속, 국적, 인종의 구분은 없었다. 한파가 몰아친 11월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은 따뜻한 자비심으로 가득했다. 조계사가 개최한 '자비의 김장 나누기'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왼쪽서 두번째〉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직접 김장 1만 포기를 담가 소외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장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스님들과 함께 김장을 했다. 사진 속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외국인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청년 불교공간 全無… "포교 방향, 시설 우선을"

조계종 미래세대위 1주년 대화마당서 '한목소리'

미래세대 정책 · 지원 주제
불교 패널들 다수 참석해
신촌 등 청년 밀집지역에
불교 접할 시설 안 보여
"시설이 공동체 형성 도움"

신성민 · 윤호섭 기자

탈종교화로 인해 미래세대 포교가 모든 종교의 현안으로 떠오른 요즘, 불교계 청년포교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청년 밀집지역 종교시설 마련을 꼽았다. 청년들이 더 이상 사찰을 찾아오지 않는 현대사회에 사찰이 대학가 등 도심지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11월 28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서 '미래세대 정책과 지원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출범 1주년 대화마당을 열었다. 이웃종교의 미래세대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마당에는 불교 패널로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김영섭 (사)자비신행회 사무처장,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 효석 스님, 김동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담기자단장 등이 참석했다.

'핫 플레이스' 동떨어진 불교

이 자리서 마가 스님은 노량진에 개원한 마음충전소 활동을 소개하면서도 이웃종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호소했다. 마가 스님은 "인근 강남교회는 매일 1000명의 고시생들에게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천주교는 정원을 갖춘 30평 건물을 매입해 청년쉼터인 '천주교 친구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10여 평 건물을 월세로 운영하는 마음충전소는 후원금과 자원봉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성의 위기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강대 종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동현 단장은 소위 청년들의 '핫 플레이스'인 신촌 인근 4대 종교시설 위치를 짚었다. 그에 따르면 창천교회는 신촌 중심지인 연세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연희동성당은 중심지는 아니지만 인근 대학생 주거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원불교 신촌교당 역시 중심지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높았다. 불교는 신촌 봉원사뿐인데 중심지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부러 버스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대표적 고시촌인 장동로타리서 청년식당을 운영하는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처장의 비유가 눈길을 끈다.

"청년식당을 이용하는 한 친구가 떡을 잘 먹기에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떡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먹어보니 맛있다고. 안 먹어봐서 그 맛을 몰랐다고 말이죠. 고시촌 청년들이 배식해주는 스님을 보고, 살면서 스님과 처음 대화해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교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한 단면입니다."

청년과 호흡하는 이웃종교

그렇다면 이웃종교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까? 청년선교는 개신교가 선두주자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도시선교를 펼쳐온 미와십자가교회는 공연장, 전시회장, 연극연습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아이'를 지난 2014년 2월 대학로에 오픈했다. '상상을 넘어 표현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을 시작하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무대를 열 수 있는 실험실과 같은 공간이다.

왕십리에는 홍대클럽 분위기의 기독교 문화공간인 'Dear Dancing David 클럽(춤추는 다윗아 클럽, 이하 DDD클럽)'이 있다. DDD클럽은 문화공연(콘서트, 뮤지컬, 연극, 파티, 예배)에 목마른 한국 기독교 젊은이들을 위해 대관을 해주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된 이익은 클럽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캄보디아 선교 기금으로 활용된다.

공간이 주는 포교가능성

대화마당에서 포교전문가들은 청년밀집지역 불교공간 건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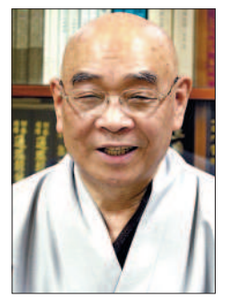
김영섭 사무처장은 "경험에 비추어볼 때 좋은 프로그램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공간 마련이다.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램도 사람이 모일 공간이 없으면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김 사무처장의 발언에 마가 스님도 엄지를 치켜세웠다.

불교계가 청년밀집지역에 불교공간을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많은 사찰들이 카페 등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청년밀집지역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상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앞 문화카페 '쿠무다'와 대한불교진흥원이 서강대 후문 인근에 운영 중인 문화공간 '숨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숨도에서 동문들과 명상시간을 보내는 서강대 불교동아리 '혜명회' 김경록 회장은 "불교공간이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학생들이 불교콘텐츠를 중심으로 활동하려 해도 공간을 구하지 못해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여러 공간을 통해 청년들이 불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난다면 불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제 30회 포교대상 대상 혜거스님 · 대원성 보살

조계종 포교원 오는 12월 19일 시상식


혜거 스님


대원성 보살

제30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에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과 부산연꽃모임 회장 대원성 보살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8일 2018년 제30회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혜거 스님(금강선원 선원장), 대원성 보살(이정옥, 부산 연꽃모임 회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남성사 주지 정우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곽명희 前포교사단장, (사)자비신행회가 선정됐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법룡사 정현 스님(법룡사), 사단법인 동련 이사 탄경 스님, 한의사불자연합회 정주화 회장, 조명하 백천문화재단 대표, 충북파라미타청소년 연합회, 월정사 출가학교가 선정됐다.

대상(종정상) 수상자로 선정된 혜거 스님은 1988년에 서울 강남에 금강선원을 개원하여 도심 포교의 중심선원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28년간 경전반을 상설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교리를 강의하였으며 전국금강경강송대회를 개최하여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불자들에게 전파하였고, 마음 치유와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인성프로그램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포교원 측은 "명상지도자 양성에도 기여함은 물론 경전 강의 교재제작, 학술저서 집필, 등 약 100여 종의 저서를 발간하여 신도교육과 교육불사, 지역사회 포교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대원성 보살은 부산수행단체 '연꽃모임'을 창립하여 42년간 회장을 맡아 불자들의 신행과 사경 및 사찰순례, 지역사찰 봉사, 선원대중공양 등 지역 불자들과 주민들의 신행도우미 역할을 맡아 오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 동국대학교, 동곡학원 선화여고 등에 발전기금, 부산불교방송 신사옥건립기금을 보시했으며 '보현봉사회' '내생장학회'를 조직하여 재활원 봉사와 장학사업 등 지역 불법홍포에 기여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제30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 ·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I 2019년 3월 8일 출발
225 만원

창립30주년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출발일 I 2019년 4월~10월 (매월출발)
239 만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 9일
출발일 I 2019년 3월~4월 중 출발
259 만원~

· 포함사항 - [노옵션] 왕복항공료(유루세, 공항세 포함),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관광지 입장료, 팁경비 포함
· 불포함사항 - 개인적 성격의 지출, 짐 포터·룸메이드 팁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모집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Since.1989 실크로드여행사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

불교여성개발원, 포교원과 대립각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단독 취임 강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그동안 개발원장과 사단법인 이사장 겸직 관례를 깨고, 부설 법인 이사장 취임을 단독으로 추진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임식 및 김외숙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설립한 불교여성개발원은 포교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단체다. 이사장인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사전보고 미비 등을 사유로 이사회 연기를 통보했지만, 불교여성개발원은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11월 5일 김외숙 수석부원장을 단독후보로 상위기관인 포교원에 추천했다. 포교원이 후보 선출과정의 문제와 후보자격 문제로 개발원장 임명을 거부하자 부설 사단법인 이사장의 단독 취임을 강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취임식 직전인 11월 2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이 연기 통보한 이사회서 개발원장을 추천한데 이어 원장 임명이 거부되자 그동안 개발원장이 겸직하던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취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을 별도로 선출한 것은 포교원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 절차 문제로 임명 거부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이 연기 통보한 이사회에서 추천된 개발원장 후보는 김외숙 불교여성개발원 수석부원장이다.

노숙령 원장은 "앞서 열린 지혜로운여성 이사회에서 김외숙 여성개발원 수석부원장을 단독추천,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에서 후보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이사회서 후보 추천
포교원장 임명 거부에 반발
개발원장 겸직 관례 깨져
운영규정 정비 목소리 높아
12월 3일 공개간담회 주목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이사회는 정관상 포교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추천 권한이 없다. 포교원 측은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외숙 수석부원장의 개발원장 후보 자격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김 수석부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 3원장 퇴진을 기치로 건 8월 전국승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숙령 원장은 "뒤늦게 파악했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3원장 퇴진 반대 집회 참여를 이유로 기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포교원 측은 "상식적으로라도 종단을 부정하는 집회에 참석한 자를 포교원장이 산하 포교단체의 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2배수 추천, 이사회 연기 등 요청에도 관례를 깨가면서 사단법인 이사장 취임을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외숙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이 함께 새겨진 깃발을 흔들고 있다. 그동안 양 단체는 겸직 관례와 함께 운영상 불가분의 관계로 있었다.

깨진 겸임 관례, 문제는 없나

불교여성개발원은 규정에 따라 노숙령 원장 임기만료 후 김외숙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현 사태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일정수준의 문제를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의 경우 정관상 이사 자격에 조계종 신도 등의 자격요건이 없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정관상 지혜로운여성의 지도 감독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단법인 특성상 인적 구성에 따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지혜로운여성의 경우 공익 역할을 맡아 불교색채가 옅다. 수장을 서로 겸직하는 관례는 연결고리를 그나마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상위기관 정관 내 일정부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주상보〉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苦의 끝 '자비희사'

자비희사(慈悲喜捨)는 여래의 복장(腹藏)이고, 체(體)이고 모습입니다. 자비희사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아미타불의 보처 관세음보살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고 온세상을 구제하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들에게 한량없는 4무량심을 행합니다. 아픈 이에게는 약이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하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됩니다.

대자대비를 서원으로 하는 관세음보살은 대상에 따라 온갖 모습으로

평온(捨)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의 균형입니다. 아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자 즉 비 · 희 · 사이듯 자와 비와 희와 사는 서로 상보적 관계로 결합하여 성스러운 관계가 되는데 평온의 기여가 큽니다.

4무량심은 비움이고 그 비움은 여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희사에 해당하는 나누고 비우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볼륨이 커져 업장이 소멸되고 곳곳마다 행복의 꽃을 피웁니다.


비움은 여백 그림 · 조향숙

이웃과 하나되는 '4무량심'
"처처에 행복의 꽃 피우는 관세음보살로 삽시다"

응현하여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4섭법(四攝法)으로 제도합니다. 4섭법은 자비희사 4무량심의 모습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자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심이란 대자비심이다.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다."

자비는 불심이고 이웃과 하나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자비와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 **자애(慈)**는 애착이나 소유욕이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즐겁게 하는 마음입니다. 인연 연기를 보면 누구에게나 자애로울 수 있습니다.

동정(悲)은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 고통에서 구해내는 연민입니다. 제비다리 고쳐주는 흥부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뻐함(喜)은 다른 이의 행복을 기뻐하고 그의 행복이 지속되기를 축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경전에서는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된다' 고 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별개가 아닌 한쌍으로 불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 이웃은 내 복밭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주었다는 생각도 복밭도 업도 과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할 뿐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양심의 도량이고 정토입니다.

4범주(四梵住)인 4무량심을 잘 닦으면 대범천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4무량심 수행으로 범천의 경지에 이르면 지금 여기에 범천의 세계가 열리므로 고(苦)의 끝, 이고득락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명자를 가지면 큰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니 위신력 때문이다. 큰 물에 표류해도 그 명호를 부르면 얕은 곳에 닿게 된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현세의 고통을 없애주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자비행을 신행하면 내안의 관세음보살에서 무량공덕이 가피로 나옵니다. 그 가피의 에너지는 시방세계를 밝히는 광명입니다. 관세음보살로 삽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대장경 전산화 매진 종림 스님 은관훈장

오는 12월 6일 수여식



고려대장경 전산화와 연구에 매진해온 종림 스님〈사진〉이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이 문화재청에서 시상하는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종림 스님은 1992년부터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연구 등 경전과 고문헌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한 디지털 대장경시대를 연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여식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덕수궁 석조전에 열린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전법단 '지역중심' 전환한다

11월 28일 전법단 대중공사서 신년계획 공개

사암聯과 연계, 활동역량 확보
도심 등 교세 취약지역 전법
신년 초 의견수렴, 봉축 출범

조계종 전법포교를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전법단이 새해 지역중심으로 전환된다. 불교세가 약한 취약지역의 전법포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계종사암연합회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포교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28일 2019년 전법단 방향 모색을 위한 대중공사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대중공사에서는 지역전법단의 신규 및 재출범 건이 논의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전법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17개 광역시도별 조계종사암연합회를 지역전법단의 기본으로 하는 신규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전법단 개편안에 따르면 2019년 부산과 대전지역 등 우선지역을 선정해 지역전법단 모델을 만들고 전국 광역시도별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지역전법단은 실질적인 활동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데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암연합회 역량을 더해 그간 하지 못한 지역포교사업 등도 전개 가능하다. 또 지역별 포교현안에 맞는 접근도 가능하다.

포교원은 신년 초 지역전법단 출범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3~4월 지역전법단 출범을 위한 해당지역 조계종사암연합회, 교구본말사 현황파악을 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범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5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전법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6~7월과 10월~11월에도 지역전법단 출범을 위한 현황파악 후 9월 2차, 12월 3차 지역전법단 출범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계층포교 지원을 위해 구성한 계층전법단의 경우 기존 포교신행단체와 활동이 겹치는 분야는 일정부분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교원 측은 "도심포교의 중요성과 교세 취약지역에 대한 전법 확대 필요성에서 지역전법단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사암연합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실제로 많은 사찰과 신도들이 전법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전법포교의 기운이 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

“세계유산 山寺, 복합문화유산 가치 가져”

등재추진위, 11월 27 · 29일 기념식 · 학술세미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함께 세계유산 산사 보존 다짐해

세미나선 ‘통합관리단’ 제안 모니터링 · 정기보고 등 역할 유산 홍보 · 연구도 추진돼야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지난 여름 통도사 · 부석사 · 봉정사 · 법주사 · 마곡사 · 선암사 · 대흥사 등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불교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잇달아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27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기념식’을 열고, 우리나라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산지승원의 가치를 재차 조명했다.

산지승원은 지난 6월 바레인서 열린 제42차 세계유산회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7개 사찰에 대해 △7~9세기에 걸쳐 창건돼 현재까지 지속되는 종교적 수행의 중심지를 대표 △다양한 종파들과 역사적인 관련성 △주목할 만한 많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물 △한국불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 등을 인정해 산지승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산지승원 세계유산 추진 경과를 돌아보고, 공로자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산사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기념사에서 “산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조계종은 이미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1700년 간 이어온 한국 승원문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1월 27일 열린 등재 기념식에서 세계유산 인증서를 원행 스님(사진 왼쪽서 두번째)이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에게, 도종환 문체부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어 원행 스님과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산지승원 7개 사찰과 각 지자체에 인증서를 전달하고, 세계유산의 등재를 선포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등재사를 통해 “산지승원 사찰들은 지난 1400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며 수행 정진한 스님들과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도량”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산지승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현재 환경보존만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공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호영 회장은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는 복합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원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전반적인 정책들이 재조정되고 적합한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29일 열린 등재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사찰, 종단,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산사 통합관리단’을 통한 종합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연속유산의 보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발제한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장은 ‘산사 통합관리단’ 구성과 역할을 제언했다.

그에 따르면 ‘산사 통합관리단’은 중앙정부기관인 문화재청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단체와 종단 · 7개 사찰 · 신도회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책임질 사무국으로 이뤄진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은 기획홍보팀 · 학술연구팀 · 통합모니터링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산사 통합관리단’ 역할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통합 모니터링과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역사 · 문화 ·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보존 관리 역량 강화 △홍보 및 교류 사업 추진 △심화연구와 교육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보와 연구 분야에 대해 이동주 부장은 “전문기관과 함께 경쟁력 높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심화연구를 위한 학술논문 공모와 학술총서 발간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혜은 동국대 석좌교수 역시 ‘산사 세계유산 등재 의의’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등재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보존 ·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사 통합관리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혜숙 교수는 “기존의 등재추진위를 산사 통합관리으로 전환해서 7개 사찰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전문가 및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南北 공통 역사… 교류 지원 노력”

조명균 장관, 26일 BTN붓다회포럼서 강조

“불교는 유구한 한반도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상호 소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은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BTN붓다회가 개최한 제1회 포럼 기조강연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남북평화시대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서 조명균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 진단과 정부 통일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종교 ·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비핵화와 경제발전이라는 ‘평화는 경제’라는 확고한 정책적 명제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위기가 많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 관계가 있어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며 “강한 국방력을 확보한 평화도 있지만 경제적 관계와 이를 통한 외교 협상을 통한 평화도 생각해야 한다. ‘평화-경제’라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핵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 방면에서도 중요하며, 특히 종교적 교류도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조명균 장관은 남북 간 불교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원효스님의 화쟁 사상을 예로 든 조명균 장관은 “불교는 한국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다. 이는 남북 교류와 소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사찰 복원이나 자비 나눔 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대북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BTN회장이자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원택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붓다화포럼 좌장이자 국회 정각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됐던 승탑 부재 · 석불 돌아왔다

문화재청, 울산 신흥사 승탑 부재 · 상천리 석불 회수

도난돼 행방이 묘연했던 석조 불교문화재 2점이 돌아왔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청 산하 사범단속반이 2000년 10월 도난당한 울산 신흥사 승탑부재(1701년 제작)와 2013년 1월 도난당한 창원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조선 시대) 등 석조 불교문화재 2점을 11월 27일 오전에 회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화재들은 본래 울산시 신흥사와 창원시 상천리 폐사지에 있다가 도난되었는데, 이후 개인자택 등지에서 은닉되고 있다가 적발됐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는 도난문화재를 불법으로 취득 후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친 끝에 이번에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흥사 승탑부재는 사각의 석재에 ‘康熙四十辛▫愚堂大師▫▫巳三月日’(강희사십신▫우당대사▫▫사삼월일)로 확인된 명문이 오목새김(음각)되어 있다. 특히, ‘▫愚堂大師’(▫우당대사)라는 명문을 통해 청나라 강희제 제위 40년인 1701년에 조성된 승탑인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회수한 울산 신흥사 승탑부재(사진 왼쪽)와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사진 오른쪽)의 모습. 석불의 경우 두상이 없었지만 은닉자가 불두를 조성해 접합해놨다.

2000 · 2013년 각각 도난돼 개인 자택 등 은닉해 보관 사범단속반 지속 수사 펼쳐

사각의 석재는 조선 시대 일반적인 종형 승탑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특이한 사례로, 경남지역 불교 유적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석재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승탑부재에는 연꽃을 돋을새김(양각)한 면석이 있는데, 울산 신흥사의 승탑석재와 동일한 문양이다.

이 승탑부재는 현재 비지정문화재이나, 울산 · 경남 지역의 조선후기 승탑과 비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기념비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주변 지역 승탑과의 시기적, 지역적인 유사성을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후기 석조물의 양식을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창원시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의 경우 불두(佛頭, 부처의 머리)를 확인할 수 없지만 통견식(通肩式,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형식)의 대의를 입고 가부좌한 모습을 볼 때 여래상으로 판단된다. 여래상은 둔중한 체구에 불신의 양감이 적고 결가부좌한 양발이 모두 드러나 있으며, 옷자락을 잡은 수인의 형태 등에서 조선 시대 지방에서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여래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석조여래좌상은 국립 창원대 박물관에서 보관 · 관리되고 있으며, 승탑부재의 경우 울산시와 신흥사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인수 · 인계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도난된 문화재들을 조속히 회수해서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18 불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 및 세미나는 날로 심화되는 스마트폰 ·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불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불교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불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불교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 내 관련 사업의 조직화 ·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상됐다.

출범식에는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오용수 국장 등이 참여했다. 또 한국가톨릭문화원장 김민수 신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한국중독심리학회장 조현섭 교수가 참석했다.

불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장 가섭 스님은 “이번 문화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스마트 기기 중독성을 알리고 의식전환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출범 소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서산 부석사 관음상

韓 "왜구 약탈" vs 日 " 증거 없어"

약탈 증거 대라는 일본
일본 이운 기록 없어
환지본처가 세계정의
부석사, 반환 간절히 호소

11월 24일 제자리 봉안 위한 양국 연구자 토론회 열려



봉안위원회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11월 24일 부산국제라이온스 클럽 별관에서 '서산부석사 금동관음상 제자리봉안을 위한 한 · 일 연구자 토론회' 를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한국은 "왜구의 약탈로 관음상이 일본에 전달됐고 원래인 한국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은 "왜구의 약탈이란 증거는 현재 없다. 절도 사건이니 법률에 따라 장물은 소유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제자리봉안위원회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11월 24일 부산국제라이온스 클럽 별관에서 '서산부석사금동관음상 제자리봉안을 위한 한 · 일 연구자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일본 측 토론자들은 절도 사건으로 관음상 문제를 접근하며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바른 절차를 논의 후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왜구 약탈에 대한 증거는 밝혀진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토론회에서 일본 모리모토 가쓰오 교수(오사카 경제법과 대학)는 "한국은 왜구가 관음상을 약탈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실 증명은 어렵다"며 "약탈 문화재에 대해 동남 아시아권에서 진지한 논의가 열린 바가 없어 발생된 문제이다. 모두가 납득할 논의를 거친 후 그 기반에 따라 절차를 정하고, 관음상도 반환 혹은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칸노 도모코 기자는 "관음상은 돈을 노린 단순한 절도 사건이다. 형사사건의 관점으로 본다면 범인이 실형이 확정된 후에는 장물은 일단 도난당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분명한 왜구 약탈품이라고 반박했으며 아울러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 점을 비난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토론자인 김병구 변호사는 "지금 이 시간 왜구의 약탈임을 증언하는 자료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약탈된 고려시대 불상 중 제작자가 밝혀진 불상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복장물이 있기 때문이다"며 "고려와 조선시대 불상은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복장에 이운기록이 작성된다. 관음상에는 이운기록이 없다. 정상적인 이운양도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경임 前 튀니지 대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절도 사건으로 본다면 저는 왜구가 무력으로 빼앗은 강도 사건으로 보겠다"며 "전쟁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관련해 국제 사회 흐름은 원래 장소로 돌려주고 정의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논의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문길 소장(한일문화연구소소장)은 "사학자 향토사 연구지인 〈대마도의 자연과 문화〉 제39호에 보면 왜구가 1375년 9월 서산에 침입했다고 당시 지도를 찾아 발표했다"며 "객관성 있는 자료이며 증거물이다"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관음상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다.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가 일본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더 이상 손상되거나 방치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신도 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고 부석사로 관음상을 돌려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발표에 참여한 안효돈 서산시 의원은 "관음상이 서산시로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을 17만 서산시민이 확신한다. 이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부석사에서 온 한 신도는 "관음상이 부석사 원래 자리로 돌아와 신도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까지 모든 신도들은 의지를 다해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국내 절도범들이 대마도에서 관음상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2013년 1월 절도범들은 체포되었고 부석사가 왜구에 의해 약탈된 관음상이며 부석사 소유라 주장하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은 인정됐고 불상은 한국에 남게 됐다. 부석사는 관음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1월 승소했다. 현재 정부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네팔 스님 · 불자들도 "사찰음식 좋아요"

문화사업단, 진관사서 이주민 대상 사찰음식 체험



사찰음식 명장 제2호이자 진관사 주지인 계호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을 네팔 스님과 불자들이 지켜보는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네팔 스님과 이주민들을 위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인 사찰음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1월 25일 서울 진관사서 네팔 이주민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통해 이주민들의 한국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네팔 스님도 참여했다.

이날 체험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제2호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의 강연과 무전 · 배추전 · 두부조림 등의 음식 만들기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강연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으면서도 각자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니마상예(Nima Sangye) 씨는 "스님께서 직접 사찰음식을 시연해주셔서 인상 깊었다.

특히 같이 온 친구의 생일에 사찰음식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찰음식 체험 이후에는 선우 스님(진관사 템플스테이 국장)이 '마음수행' 이라는 주제로 차담을 이어갔다.

행사가 끝난 뒤 네팔의 군상도르제(Kunsang Dorje) 스님은 "평소 사찰음식이 유명한 진관사에 와서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 네팔과는 다른 한국 불교문화를 접하고, 진관사 역사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불교사회복지대회

조계종복지재단 12월 6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 의지를 다지는 축제가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2월 6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2018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제2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부로 구성됐다. 1부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는 조성희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불교사회복지 활동 방향' 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표 이후 종합토론도 예정돼 있다.

2부 자비나눔 기념대법회에는 국회의장상, 총무원장표창, 장관표창 등 유공자시상식이 진행된다.

김지원 기자

지구 '생태용량' 과소비…"절대량 줄여야"

윤순진 교수, 녹색불교포럼 주제발표서 지적



"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를 가지려는 것은 욕심' 이란 법정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세대 몫까지 지구 생태용량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고, 에너지 소비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 사진)는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불교환경연대 교육장 그린담마홀서 열린 11차 녹색불교포럼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환경문제 가운데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폐기물 문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집중 조명하고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폐기물 문제 연기성' 을 주제로 한 발표서 윤 교수는 "이미 지구 기후가 더워지는 변화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의한 것으로 과학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온실기체 배출원의 68%는 에너지 즉, 화석 연료이므로 기후 문제는 곧 에너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에너지 서비스 개념을 통해 '에너지 절약' 과 '에너지 효율 개선' 의 차이를 설명했다. 윤 교수는 "우리는 에너지 자체가 아닌, 에너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에너지 절약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만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고, 효율 개선은 서비스 질은 동일하지만 투입하는 에너지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탄성효과(rebound effect)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높아진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사용량 감소는 정비례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일상 속 절약과 기후친화적인 정치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서는 보완적 차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및 전환 △탄소흡수원인 산림 확대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원기자 jayjace@hyunbul.com

韓中 스님들, 중국서 불교수행 교류

종단협, 강소성 천녕선사서 제11차 한중수행체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 스님들이 중국에서 불교수행을 교류하며 양국의 우호를 다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는 11월 23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 상주시 천녕선사에서 제11차 한중수행체험을 실시했다.

천녕선사는 1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찰로 중국 동남 제일의 사찰로 알려져 있다. 종단협에 따르면 100여 명의 스님들이 천녕선사에서 수행 중이다.

이번 수행체험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단장으로, 조계종 · 천태종 · 진각종 · 태고종 · 총지종 · 대각종 등 각 종단이 참여했다. 중국 측에서는 천녕선사 방장 곽진 스님, 강소성 불교협회장 신청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 스님, 황매 오조사 방장 정자스님 등이 함께했다.



중국 강소성 천녕선사 예불에 참여한 한국 대표단 스님들. 스님들은 참선수행과 사찰공양 등 중국 사찰생활을 체험했다.

한국대표단은 이 기간동안 예불과 참선수행, 사찰공양 등 사찰생활을 체험하고, 불교유적 및 사찰순례, 한중불교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

한편 한중수행체험은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부속사업으로 한국불교와 중국불교계가 매년 번갈아가며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연말 연시 소외이웃에 '나눔 온기'를



사찰음식으로 구성된 '원식' 메뉴에는 11월이 생일인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미역국이 더해졌다. 동행수라 대상자 어르신들이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불교계 취약계층 위한 기부 · 모금 자비행은?

글=하성미, 김지원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찰음식 생일상'을 지원하는 동행수라 사업을 11월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서 진행된 첫 동행수라 현장부터 지역 곳곳에 퍼져나갈 불교계의 따뜻한 나눔 보시행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어르신, 이 두부는 양산 통도사 불자들이 직접 만든 두부예요.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순해요. 드셔보세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을철 식재료로 정성껏 차린 사찰음식이 차례대로 생일상에 올랐다.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봉사자들의 축하를 받는 어르신들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위해 '사찰음식 생일상'을 대접하는 불교계 자비나눔 사업이 첫 술을 떴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은 11월 27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5층 발우공양서 '생애 잊지 못할 생신상-동행수라'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서 추천받은 어르신 7명은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봉사자들과 함께 특별한 생일 한 끼로 축하를 받았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예전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수라'처럼, 그간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고자 불교계에서 특별한 생신상을 선물로 준비했다"며 "사찰음식과 더불어 불교 전통과 문화를 함께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대된 어르신들은 모두 11월이 생일인 만큼, 식사에 앞서 생일케이크 행사도 마련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시란 의미를 담아 1살짜리 초 7개를 꽂아 생일축하노래를 불렀다. 발우공양의 '원식' 메뉴에 특별히 준비한 미역국이 더해지자 잔치 분위기를 돋웠다.

자신이 불자임을 밝힌 김장호(가명, 80) 어르신은 "사찰음식은 스님들이 드시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먹으니 좋다"며 "불교계에서 색다른 생일상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의미를 담은 축하를 받아서 불자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옥주(가명, 79) 어르신은 발우공양이 불교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인지를 물으면서 "미혼이라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나에게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축하해주니 고맙다. 음식이 입에 잘 맞다"고 인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5일까지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마다 동행수라상을 11번 더 차리게 된다. 발우공양서 식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 조계사 경내를 산책하거나, 봉사자들과 어르신이 함께 차담 나누기, 불교중앙박물관 탐방 등 일정도 추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연말을 앞두고 자비나눔 움직임이 한창이다. 김장김치와 이불 등 생필품을 소외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부터 SNS인 카카오 등을 통해 기부하는 모금 캠페인 방식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인 나눔행사로는 서울 봉은사의 김장나눔축제,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의 한파대비물품 마련 모금함, 부산 보현회의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교복 지원 떡 판매 등이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2월 8일 오전 9시 경내 주차장 일대서 김장나눔축제를 연다. 해마다 진행해온 김장축제서 담근 김치 일부는 소외이웃과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된다. 봉은사는 행사에 쓰일 찹쌀, 고춧가루 등 보시를 받고 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중계 2, 3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서 '제5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독거 장애인 및 어르신 200세대에 솜이불 200채와 컵라면 200박스가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민숙)은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수유중학교 식당 및 화계경로당서 '수유중학교-경로당 연계 김장행사'를 연다. 교육복지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김장나눔은 수유 · 인수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을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 산하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는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장 따뜻한 온도 36.5도, 어르신에게 전하는 온기' 모금을 전개한다. 복지관은 서울 성동구 지역 저소득 어르신 112명에게 발열내의 등 한파대비물품을 지원하고자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개설했다. 모금액으로 마련한 물품은 설명절에 전달된다. (02)2282-1118

서울 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임도영)은 1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설 내 응급구호실서 '동절기 야간응급구호사업'을 전개한다. 보현의집은 영등포역 일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차량을 운행,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생필품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성)은 12월 초 복지관 강당서 '복지관 서포터즈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재가장애인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한다. 경주지역 18개 봉사단체 500여 회원은 행사를 위해 기금 400만원을 마련, 12월 1일 합동 김장을 실시한다. 만든 김치 300포기는 10kg 단위로 포장한 뒤 3일부터 5일까지 재가장애인 80여 가정에 전달된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12월 19일 부산 르네상스호텔 뷔페서 '나눔을 위한 일일 찻집'을 개원한다. 연합회는 해마다 찻집 운영으로 모은 기금을 청소년 장학사업, 해외 불교국가 구호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등 활동에 보태왔다.

부산불교 보현회(회장 안성이)는 내년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교복 후원 마련 떡국 떡 판매'를 진행한다. 보현회는 떡 판매기금으로 매년 소년소녀가장 및 종립 학교 학생을 위한 교복 25벌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아름다운동행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 종교가 가진 사회통합 역할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며 "나눔행사들을 통해 불교계는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소외이웃들은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된다"고 전했다.

〈김치 · 생필품 지원〉

서울 봉은사	김장나눔축제	12월 8일	(02)3218-4801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불 및 라면 나눔	12월 10일	(070)8667-7692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김장김치 전달	12월 17일	(02)999-9179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장김치 전달	12월 3~5일	(054)776-7522
부산 화엄승가회	연탄 전달	12월 16일	(051)711-0700

〈모금 및 기금마련〉

(재)아름다운동행	연탄 · 책가방 지원	내년 2월까지	(02)737-9595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방한물품 지원	내년 1월까지	(02)2282-1118
서울 영등포보현의집	노숙인 응급구호 내년	3월까지	(02)2069-1600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	일일 찻집	12월 19일	(051)302-5657
부산불교 보현회	교복 마련 위한 떡 판매	내년 1월 중	(051)636-4531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무료급식 위한 떡 판매	12월부터 상시	(051)582-7013

제 54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4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9년 1월 6일(일) ~ 1월 12일(토) [1주간]
■ 모집인원 : 60명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수련회비 : 49만원(1박당 7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양말·운동복·운동화 · 목도리 · 장갑 등
■ 휴 대 금 지 : 현금, 휴대폰, MP3 등
■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054-744-1689
■ 홈 페 이 지 : www.sunmudo.com

주요 프로그램

호연지기와 인성함양 프로그램
선무도수련과 힐링명상, 승마/국궁,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
주지스님의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캠프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시범지도)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 학습
동경주 유적답사
기림사.감은사지.문무왕릉
역사교육체험-경주국립박물관



※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선 무 도 화 랑 학 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대체의학인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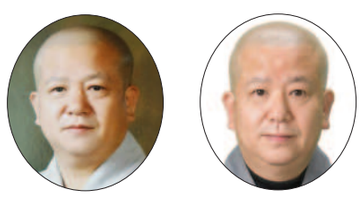
■ 입 문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진흥원 학연불리강좌

존엄한 죽음은?… 맞이하는 '죽음'

주제 : 불교적 임종과 호스피스 의료

임정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본부장



임정애 교수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다.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MGH 교환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11월 20일 서울 다보빌딩 다보원서 〈돌아가는 길, 나의 등불〉의 대표저자인 임정애 교수를 초청해 '삶과 죽음을 성찰하다' 강좌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강의를 통해 "불자들이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작성 등을 배우고, 가족과 도반 등 주변부터 호스피스 봉사를 베푼다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불교적 죽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이전까지 임종기 환자의 죽음은 병원 중환자실이나 간호사 처치실에서 낯선 의료진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소한 환경에서 보호자도 없는 이런 죽음이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호스피스의료 부족한 불교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이 중심이 됩니다. 호스피스는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 영적 영역에 대한 고통을 줄여줌으로써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활동입니다. 잘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임종방이란 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종방은 1인실이고, 말기 환자와 그 보호자가 오롯하게 지내면서 환자가 부처님 생각을 할 수 있고, 보호자가 부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임종 후에 하는 시다림과 49재 등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님, 도반, 불자 봉사자들은 평상시 불교적 생사관과 불교적 임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 호스피스병원, 요양병원, 불자 간병인 수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불자 환자와 보호자들은 가장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임종기에 황망해하며 어쩌지도 못하고 임종을 맞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의사를 위한 표준 호스피스 완화의료 과정을 수료한 당시, 불교계에는 호스피스 의료과정이 지금보다도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웃종교계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배웠습니다. 수업 중에 "내게 남은 마지막 몇 개월의 영적 성숙이 인생 전체의 영적 성숙보다 클 수 있다"고 하신 교수님 말씀은 제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처음 인식했죠.

그리고 호스피스 실습과정에서 봉사자들과 참 좋은 인연으로 많이 만났어요. 실습한 곳이 22명의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센터였는데, 그 중 5명이 불자였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봉사자들은 결코 그 불자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자를 위해 가톨릭 봉사자들이 찬불가를 배웠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찬불가를 들려주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었죠. 그 모습에 감명받은 저는 작은 힘이지만 불교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좀 더 알려야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불교 사생관에 따른 임종의식

불교에서는 임종 전후를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임종 때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 내세가 달라진다고 보고, "임종의식이 내생의 재생의식이다"고 표현합니다. 불교적인 관점에 따르면 임종 때 정념을 유지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 임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임종 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르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지성껏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원력과 임종자의 자력이 합쳐져 극락왕생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 **불교서는 임종이 곧 재생의식**
> **임종자가 내세에 불법 만나게**
> **돕는 보호자 역할 충실한다면**
> **저절로 자신의 죽음교육 대비**

먼저 환자는 이 시기 생에 대한 집착보다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참회, 보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명, 남겨진 가족과 재산 등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뒤로 하고요.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며 임종과정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참선, 염불, 사경, 독송 등 그동안 해온 여러 방법의 불교 공부와 신행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해나간다면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 기도나 염불을 하지 않았던 불자의 경우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가장 많이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안 · 이 · 비 · 설 · 신 5개의 감각 중 촉각과 청각이 가장 늦게까지 남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지더라도 염불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말기 환자가 되면 불안한 마음으로 개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환자의 의식이 혼미할 때 당사자 동의 없이 타 종교를 믿는 가족에 의해 개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환자는 호스피스의료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미리 불자로 남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자신의 장례 계획과 49재 등에 대해서도 보호자, 스님과 도반들과 이야기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가 더 힘들까요, 보호자가 더 슬플까요? 임종자가 내세에도 불법을 만나도록 해드리는 것이 보호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죽음을 잘 수용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은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보호자 스스로의 슬픔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모든 초점을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환자가 임종한 뒤에 남겨진 보호자들은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실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슬퍼하는 것도 치유의 한 방법일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존엄하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보호자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가 상실감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임종방에서 환자와 오롯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추후 겪을 상실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환자와 보호자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보호자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환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에, 보호자는 개종보다는 환자가 평생의 믿음 속에서 편하게 임종을 맞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교적인 죽음은 의학적 죽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제7, 8식(識)인 말라식과 아뢰야식이 몸을 떠날 때 죽음으로 봅니다. 식(識)은 의학적인 사망선고 이후에도 짧게는 20~30분에서 길게는 24시간 몸에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교적 호스피스에서는 임종 후에도 2시간 정도는 병실에서 계속 보살피면서 염불을 해 드립니다.

임종 전 환자가 말기를 알지 못하거나 말기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병상의례를 진행합니다. 임종의례가 예정돼 있다면 스님을 모시고 삼존불에서 아미타부처님의 손과 임종자의 왼쪽 집게손가락을 오색실로 연결해 임종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게 합니다.

오감 가운데 청각은 의식이 없을 때도 마지막까지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까지, 그리고 임종 직후에도 계속 안심하고 위로하는 말을 들려드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합니다. 극락왕생 하십니다' 등을 보호자가 임종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 직전에 보호자가 심전도 파형 등의 모니터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좋지 않습니다. 오직 임종자에게 집중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와 염불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죠. 또한 임종이 선언되면 주 보호자는 청각이 남아있는 임종자에게 임종됨을 조용히 알려드리게 됩니다. 보호자가 크게 울거나 임종자를 흔드는 것은 좋지 않고 위로의 말씀과 조념염불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스님이 집전하시는 임종의례를 못할 경우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보시행으로 웰다잉 준비

평소에 염불수행을 한 사람도 말기환자가 되고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경황이 없어서 허둥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당하는 죽음' 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을 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병원, 보건소, 비영리단체에서 작성하기 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1대 1 상담을 거쳐야만 되고요.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한 뒤에는 중앙 시스템에 입력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불자들은 본인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자연히 잘 죽고자 결심한다면 역설적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 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부처님이시라면",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라는 질문을 갖고 더욱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불자라면 잘 살고 잘 죽기 위한 결심을 한 다음,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시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도반 등 주변 사람들부터 호스피스의료에 대해 알리고, 돕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위한 불교적 웰다잉 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개개인의 실천에서 더 나아간다면 불교적 호스피스와 임종에 대한 출판, 불교 호스피스병원과 요양병원 설립, 불자 간병인 · 봉사자 육성 등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교계와 불자들이 불교적 임종과 호스피스 의료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불자 말기환자가 보호자, 스님, 도반, 봉사자의 기도와 염불 속에서 임종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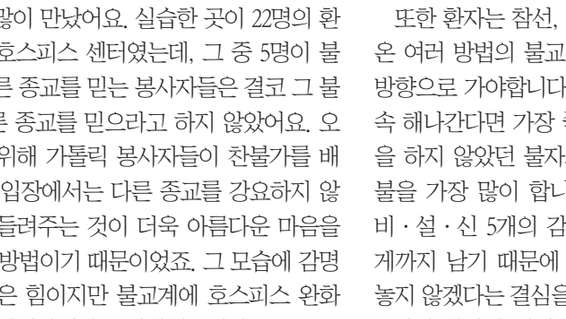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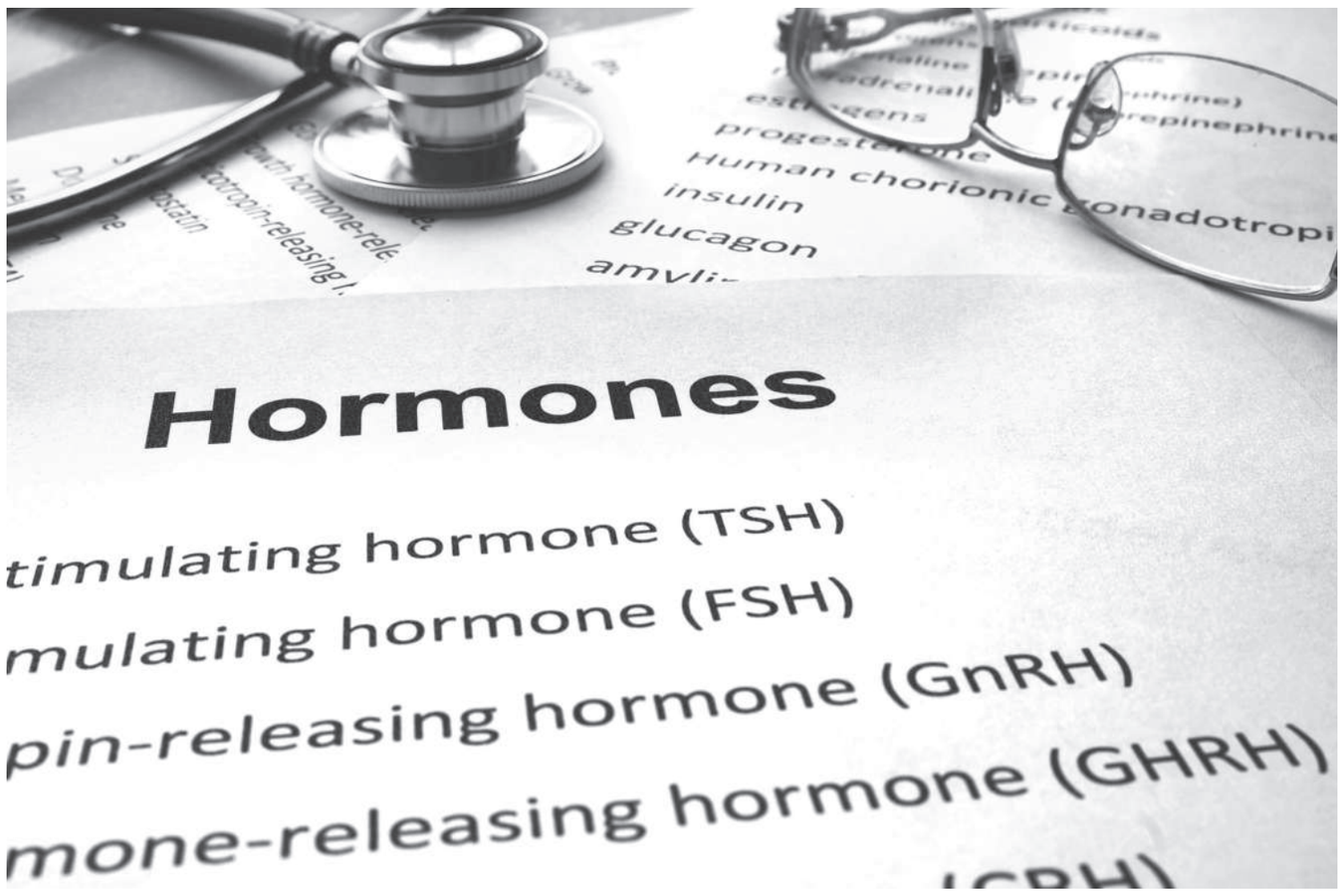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돈의동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내 몸과 마음의 가짜들이 진짜를 위협한다

⑩ 환경 호르몬



아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곁을 지날 때면 아들과 나는 거의 동시에 숨을 멈춘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만나면 숨 참고 빨리 지나가기'라는 이 행동 수칙은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시작되었다. 유치원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배운 아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 곁을 지날 때마다 내가 민망할 정도로 싫은 내색을 팍팍 하는지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숨을 멈추고 빨리 지나가자고 제안한 이후부터다. 물론 그런다고 완벽하게 담배 연기와 냄새를 피할 수는 없다. 발 없는 연기가 어딘들 못 가랴 싶게 연기는 멀리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자라나는 어린 아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싶은 이유는 담배 연기 속에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독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할지 모른다. 그게 사실이라면 담배 판매가 허용될 리가 없다고 말이다. 그렇다. 굳이 따지자면 딱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또 따져 들어가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담배 연기 속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몸무게 50kg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이는 청산가리 1,000배보다 강한 독성인 것이다.

환경호르몬은 뭐고 또 다이옥신은 어떤 물질일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완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환경호르몬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너무 모른다. 환경호르몬이 대체 무엇인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말이다. 환경호르몬은 언뜻 들으면 호르몬 같지만 정확한 용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생체 외부에서 들어와 내분비 기관 안에서 호르몬의 생리 작용을 교란시키는 화합물을 말한다. 환경호르몬은 일본식 용어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호르몬'인 척해서 진짜 호르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몸은 키를 키워주는 성장호르몬,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드러내는 성호르몬 등 생식, 성장, 대사, 수면, 감정 등 각종 생리 활동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호르몬을 몇몇 장기에서 분비한다. 호르몬은 적게 분비돼도, 그렇다고 많이 분비돼도 탈이다. 곧바로 신체 이상이나 생체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때론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몸 안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몸 바깥에서 들어온 화합물질이 호르몬인 척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그 가짜 호르몬에 속아 남성의 정자 수 감소, 청년의 정소염 증가, 자궁내막증, 질암 발병, 성 조숙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뿐 아니라 여러 종의 야생 동물의 생태 조사 결과에서도 생식 불능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식기가 퇴화되거나, 암수 동체가 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심각하다. 일단 피하고 볼 일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석하게도 환경호르몬은 우리 너무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어 피할 수가 없다. 아마도 환경호르몬이 있는 곳이나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일일이 붉은 표시를 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금방이라도 붉게 변할 것이다. 70여 종이 넘는다는 환경호르몬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서 호시탐탐 우리 몸속을 노리고 있다. 우리 일상의 필수품인 비누, 세정제, 영수증 등 광범위한 곳에 침투하고 있어 환경호르몬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 네일 폴리시, 헤어스프레이 등에는 암이나 자궁내막증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다. 이 물질은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물질이다. 유기 염소계 살충제가 있는데 농약 등에 들어 있는 이 성분은 채소나 과일 등에 흡수돼 우리 몸으로 들어와 축적되는데 엄마보다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기의 몸속에서 더 많은 양의 염소계 농약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놀랍게도 우리가 마트에서 받는 종이 영수증이나 은행에서 받게 되는 순번대기표에도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비스페놀-A는 핸드크림을 사용한 후 만지게 되면 흡수율이 1,000배 가까이 올라간다. 미국 환경실무그룹 EWG가 2010년 연구한 결과, 영수증 한 장에 있는 비스페놀-A의 양은 캔 음료나 젖병에서 나오는 양보다 250~1,000배 정도 많다고 하니 영수증 받기가 꺼려진다. 이 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로 흡수될 수 있으며 지폐 등 다른 물체와 함께 두면 그마저도 오염시킬 수 있다. 대형 마트 계산원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의 소변 검사 결과, 근무 전후 비스페놀 농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감열지 영수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대인의 필수 과제, 바디버든 줄이기
지구 화학물질 줄이는 길 찾아야
불교인, 마인드버든 줄이기

힐링 바람을 타고 사용량이 늘고 있는 향초도 포름알데히드, 벤젠 화합물, 나프탈렌 등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안심할 수 없다. 또한 여성 1인당 소비량이 일생동안 1만개에 달한다는 생리대 또한 환경호르몬 위험 품목이다.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을 빌미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2014년 몇몇 국내 제품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스틸렌, 클로로포름 등이 검출됐다. 면 생리대 사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이다. 비누, 탈취제, 항균세정제 등에 들어있는 트리클로산 역시 유방암, 불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호르몬을 교란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는 파라벤은 화장품, 식품, 의약품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부제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비닐 랩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DEHP)에 노출되어 있다. 이 성분은 가열되거나 뜨거운 기름에 닿으면 배출된다. 생식기 기형 등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또 너무 친숙하고 당연히 사용하는 것들 속에 숨어 있어서 우리는 환경호르몬에 더욱 무방비 상태다.

환경호르몬의 붉은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코팅 프라이팬에서는 과물화흑탄산(PFOA)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2004년 소비자들에 의해 밝혀지기까지 20년 이상 유해 성분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들에도 은폐된 유해 성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아웃도어 용품 역시 안전하지 않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웃도어 제품 40개 중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C)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PFC는 방열, 방수, 방유성이 우수해 아웃도어 제품, 일회용 컵, 배달피자 박스 등에 사용된다. 이 성분은 제조 과정, 유통,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물과 대기 중으로 유출되며,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체내에서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 체계에 혼란을 주는 성분이다. 건강을 위해 산을 오르고 각종 운동을 하면서 착용하는 아웃도어 용품이 오히려 해를 주고 있는 모순 앞에 놓여 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숨이 찰 정도로 가득한 환경호르몬에 대해 설핏 곁눈물질만 하다가 지난해 SBS에서 방영된 환경호르몬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다. 10년 전 '환경호르몬의 습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생리통과 자궁내막증 등 자궁질환과 환경호르몬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 준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체 내 특정 유해인자 혹은 화학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바디버든(Body burden)'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바디버든은 몸 안에 들어와 배출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화합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자각하면 바디버든 줄이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식물성 기름을 먹고, 하루 권장량의 물을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짜 호르몬을 몸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편리함에 한 번 속고, 그 편리함 속에 교묘히 파고들어 있는 가짜 호르몬에 두 번 속지 않으려면 까칠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줄도 알아야겠다.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야채를 길러 먹거나 사 먹는 것, 또 가소제를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에는 가소제가 녹아나거나 우러나올 수 있는 음식물은 넣지 않는다거나 되도록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등은 깐깐하게 챙겨봐야 할 항목들이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쓰는 제품 속에 들어가 내게로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몸 속의 바디버든 줄이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구의 바디버든 줄이기로 화두를 전환해야 한다.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공기, 물, 토양, 식품 등에서 환경호르몬이 없도록 만들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호르몬이 든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선택보다 그런 물건을 만들지 않아 지구라는 커다란 유기체의 바디버든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구는 거대한 나의 몸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아이들의 몸이기도 하므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바깥이었던 것들이 어느새 내 안을 이룬다는 걸 깊이 인식한다면, 지구의 바디버든 줄이기가 내 몸의 바디버든 줄이기만큼이나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환경호르몬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부지불식간에 초대했었는지도 모른다. 그 손님 덕에 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짜들을 발견한다. 내 몸에 들어와 배출되지 않고 머무는 화학물질처럼 내 안의 참 나를 교란시키며 끈질 지게 나를 괴롭히는 가짜가 많다. 이 참에 내가 산다, 내가 옳다는 아상과 분별 등 나 인척 하며 근본 자리를 못 보게 하는 마인드버든도 줄여나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나와 나를 분별하지 않는 공생의 가치야 말로 지구의 바디버든 줄이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천미희 기획실장(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박청락 올림



한국 순례자에게도 열려 있는 禪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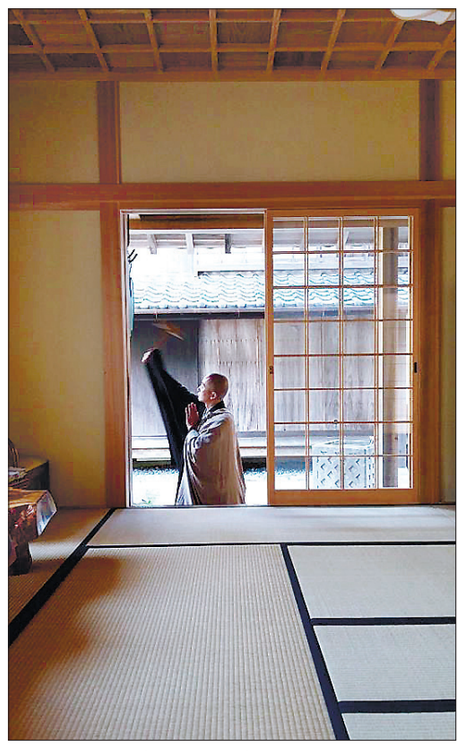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⑪ 죠만지에서의 하루



죠만지 산문. 조동종의 대본산 소지지(總持寺)에 있던 산문 하나를 옮겨온 것이다.



아침예불을 알리는 운판을 치는 주지 코야 스님.

日 조동종 역사상 9번째 사찰
소실됐으나 지역민에 의해 복원

순례길 하룻밤 청하며 공동생활
새벽좌선 참여… 단 오름 허락도
예불서는 '수증의' 읽으며 참회를

지난밤 묵은 죠만지(城滿寺)는 일본 조동종 역사상 9번째로 세워진 사찰이며 시코쿠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찰이다. 일본 조동종에서 태조(太祖)로 존경받는 케이잔 선사(瑩山禪師, 1268~1325)가 생애 최초로 개산한 선사(禪寺)이자 시코쿠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인데, 전국시대에 병화로 소실되어 약 350년간 그 터만 남아 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중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신심에 힘입어 다시금 절이 세워진 것이 약 20여 년 전. 지금은 고요한 옛 모습을 다시 되찾았다.

처음 죠만지를 찾았을 때는 2012년 여름이었다. 88개소에 속하지 않은 사찰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순례자로서 뜬금없이 하룻밤 재워주시길 청하러 가는 것이라 더욱 긴장됐다. 작은 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저 멀리 누가 봐도 사찰의 모습을 한 건물들이 보였다. 야트막한 산기슭에 넓게 자리한 가람은 그동안 보아온 88개소와는 또 다른 고즈넉한 멋이 있었다. 따로 담장도 두르지 않고 드문드문 자리한 가람은 그야말로 '적정처'라는 말에 어울렸다.

주지이신 타무라 코야 스님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입적하신 법전 스님께서 계실 때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신 적도 있다. 그 덕에 한국어도 유창하고, 사찰 여기저기 한국 물건도 보인다. 한번은 빨랫대에 널린 한국 승복을 보곤 한국 스님이 여기 머무나 했더니 코야 스님의 승복이었다. 해인사에서 강의하실 때 일본 승복이 너무 눈에 띈다며 어른스님들께서 해주신 것이라신다.

죠만지에 묵는 순례자들은 모두 사찰의 청규에 따라야한다. 하지만 순례자들에게 청규 준수를 엄하게 강요하지는 않아서 좌선과 예불, 운력 등의 필수적인 오후 일과 외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선방에서 좌선을 해도 되고, 사찰 뒷산으로 산책을 가도 된다. 코야 스님은 "다른 사찰들은 예불 후에 좌선을 하고 공양을 들지만, 죠만지는 좌선을 먼저하고 공양을 든 뒤에 예불을 모신다"라며 죠만지의 청규가 조금 특별하다고 귀띔을 해주셨다. 이 절을 처음 세운 케이잔 선사께서 세우신 청규를 따른 순서다.

며칠전 젠콘야도에서 잘 자지 못한 채 한참을 걸어온지라 몸은 그야말로 기진맥진. 코야 스님은 "걷느라 힘들었을테니 새벽좌선은 참가하지 않아도 좋다"했지만 새벽 타종에 눈이 번쩍 뜨였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요사 앞으로 나가니 대중스님께선 가사장삼을 이미 다 수하고 법랍에 따라 서 있었다.

조금 망설이고 있으니 지객 스님이 조용히 뒤로 서라고 말했다. 코야 스님을 선두로 선방으로 이동했다. 조금 쌀쌀한 새벽의 산 속, 울려 퍼지는 범종소리를 들으며 자박자박 선방에 들어갔다. 선방의 가운데 문수보살상이 모셔져 있었다. 스님의 모습으로 좌선을 하고 있는 성승문수(聖僧文殊)였다. 이는 부처님의 지혜를 찾는 선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옛 중국 당송시대 선원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지금도 일본과 중국의 많은 선방은 성승문수를 모신다.

일본의 선방은 우리와는 다르게 좌선을 하는 단상이 있어 그 위에서 좌선을 하고, 좌선 사이에 포행은 단상에서 내려와 문수보살상을 중심으로 요잡하는 것을 포행으로 삼는다. 어떻게 앉아야 하나 곁눈질로 두리번거리니 옆자리에 계신 스님이 단에 오르는 법을 알려주셨다.

먼저 벽을 등지고 좌복에 앉은 후 신발을 정리하고, 몸을 돌려 면벽을 한다. 좌복이 쿠션같이 둥글고 높았는데 가부좌를 하고 앉으니 매우 편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원래 전통적인 청규에서 재가자는 단에 오를 수 없다. 대신 단과 비슷하게 마련된 다른 자리에 앉아 좌선하는데 이곳 죠만지는 재가자들도 단 오름을 허용하고 있다.

그날 단에 올라 좌선한 재가자는 나를 비롯해 3인. 전날 같이 묵은 일본인 순례자와 근처에 사는 거사였다. 코야 스님이 문수보살에 삼배를 올리고 향을 살랐다. 수좌 스님이 좌선 중이라는 패를 거신 후 소종을 타종하면서 새벽 좌선이 시작됐다.

정말 오래간만의 좌선이었다. 처음 시코쿠를 순례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디 좋은 곳엔 잠시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기도를 해야지' 하곤 생각했었다. 하지만 매일 목적지를 잡고 기를 쓰며 걷다보니 그런 마음의 여유는 오간 데 없었다. 밤이 되면 지쳐 잠들기 바쁘니 '걷는 것이 곧 수행'이라며 자위할 뿐이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보리심에 대해 명상을 했다. 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가? 왜 보리심이 중요한가?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찰나 졸음이 솔솔 몰려들었다. 때마침 뒤에서 들리는 경책소리에 놀라 다시 정신을 다잡으니 이번엔 발에 쥐가 났다. 졸음과 저리는 발의 고통 사이에서 마음을 놓고 헤매다보니 좌선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선방에 앉은 그 자리에서 아침 공양을 받았다. 스님들은 각자 당신들의 발우를 펴고, 재가자들 앞에는 발우와 크기를 맞춘 그릇들이 나왔다. 아침 공양은 흰 쌀죽에 무장아찌, 물 한 사발의 단출한 식단이다. 코야 스님이 한국어로 일본의 발우 공양법을 설명해 주셨다.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다. 지레짐작으로 우리네 발우 공양처럼 짠지 한 조각으로 발우를 닦으리라 생각해 장아찌 한 조각을 남겼더니 웬걸, 일본은 발우를 닦아 먹는 도구가 따로 있었다. 조금 당황해서 남은 장아찌를 대충 씹어 퇴수에 삼켜버렸다.

선방을 나와 잠시 요사에 들렀다. 제대로 세수를 하고 쥐가 난 발을 열심히 주무르다 예불을 알리는 운판소리에 불당으로 향했다. 예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으로 모셔진 불당에서 아침해가 떠오를 무렵 시작됐다. 스님들이 부처님께 차와 마지를 올리고 예불집의 순서에 따라 경을 읽어 나갔다.

일본 조동종에선 매일 조석예불에서 읽는 글이 있다. 바로 〈수증의(修證義)〉다. 조동종의 개조인 도겐 선사(道元禪師, 1200~1253)가 저술한 〈정법안장(正法眼藏)〉에서 가려 뽑은 글로 총 5장 31절의 산문이다. 매일 한 장(章)씩 번갈아 읽는데 이날은 제 3장 '수계입위(受戒入位)'였다. 스님들을 따라 특유의 음으로 읽어나가는데 첫 머리부터 먹먹하게 다가왔다.

"생을 바꾸고 몸을 바꾼다 해도 삼보를 공양하며 공경해 모시길 발원할지니라."

불제자의 시작과 끝은 바로 귀의에서 비롯된다. 다시금 12번 쇼산지를 오를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나의 얄팍한 신심이 부끄럽게 느껴졌는데 이 글을 읽고 있노라니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어 계의 중요함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그만 울컥하고 목이 메어 한동안 소리 내어 읽지를 못했다.

"세존께서 명확히 일체중생을 위해 보이셨나니,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곧 모든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 대각(大覺)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를 무위(無爲)의 공덕이라 하며, 이를 무작(無作)의 공덕이라 하며, 이를 발보리심이라 한다."

이 아름다운 순례길을 걷고, 따뜻한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일들에 부처님의 은혜가 있음이 절절히 느껴졌다. 또 시코쿠 순례를 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이 순례는 그저 성지들을 방문하고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아름다움을 배우는 길'이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아침예불을 마치자 코야 스님께서 보여줄 것이 있다며 불렀다. 불당의 조명등에 제비집이 달려있었다. 곧 어미가 먹이를 물고오자 둥지에서 새끼 제비들이 아웅다웅 고개를 내밀었다.

"작년 봄에 제비가 집을 짓더니 올해도 돌아왔어요. 덕분에 법당 창문을 못 닫고 살아요."

"저렇게 집을 지으면 불도 못 키겠는 걸요?"

"작년에 잘 모르고 그냥 불을 켰더니, 예불을 마치면 새끼제비들이 전등 열에 지치기에 지금은 전구를 빼놓은 상태에요."

새끼 제비들은 무슨 복으로 매일 아침 경을 들으며 부처님과 함께 사는지! 아침예불을 하며 느낀 감사함과 아름다움이 다시금 잔잔히 몰려왔다. 제비가 깃드는 법당. 아름다운 하나의 시구 같지 않은가.

요사로 돌아와 다시 배낭을 꾸렸다. 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챙겼다. 순례자로 돌아갈 시간이다. 스님이 여유롭게 더 묵었다 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토쿠시마현이 끝나가는 길이라 다시 힘을 내서 걷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 평소 같으면 늦었다며 허둥지둥 댔겠지만 조금은 여유롭게 짐을 쌌다. 그날 느낀 그 아름다움을 좀 더 음미하고 싶었다. 길을 나서겠다고 알리자 대중 스님이 모두 나와서 배웅을 해주셨다. 이 보잘 것 없는 순례자 하나 보내주신다고 대중이 모두 나오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다음엔 오헨로상이 아니라 참선자로 오도록 해요. 죠만지 선당(禪堂)은 항상 열려있어요."

수행에 힘내도록 격려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다시 순례길로 나섰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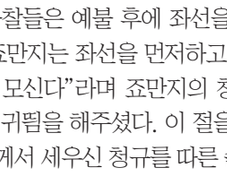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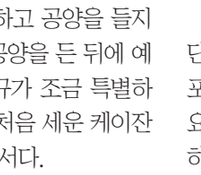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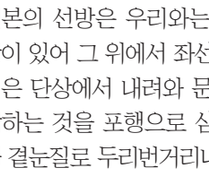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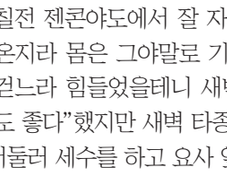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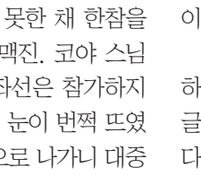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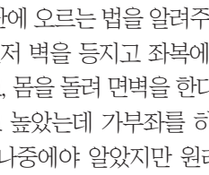
죠만지는 선원이 중심인 사찰이다. 대중스님의 안거나 수행기간에 따라 숙박이 불가 할 수 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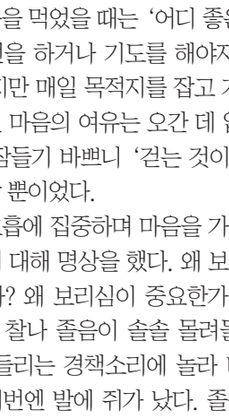
순례 외에 참선을 위해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사찰청규를 스님들과 동일하게 준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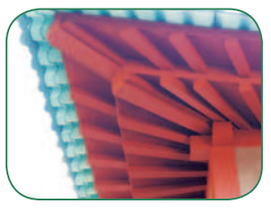
죠만지가 소재한 카이후(海部) 지역엔 순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소나 식당들이 몇 곳 있다. 23번 근처에서 따로 장을 볼 필요가 없다.



선방에 방부를 들이는 운수 스님들. 보기드문 모습에 촬영허가를 받았다.

GM 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전국 제일의 생 지장도량 철원 심 원 사
극락보전 황금위패 봉안 안내
생 지장도량인 심원사에서는 선망 조상님들의 영구위패를 극락보전의 장엄한 영단의 황금위패에 모시어 영가께서 더 이상 업보에 이끌려 방황하지 않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바른 길에 들어 극락세계에 왕생토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황금위패 봉안불사에 정성스러운 동참바라며 이 인연 공덕으로 불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어 무량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철원 심 원 사
종무소 | 033)455-3468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1길 5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무소에 문의바랍니다.
황금위패에 모셔진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매월 지장재일마다
합동 제사를 모십니다.
수자령 · 대명수 합동 49재
수자령(낙태영가 및 유산영가)과
대명수(자살자, 객사자, 변사자 등)와 같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잘 보내드려서 자손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원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입 재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회 향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차 량 (토) 오후 5시 / (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출발
개인 49재 박제천도재 매일 상석을 올려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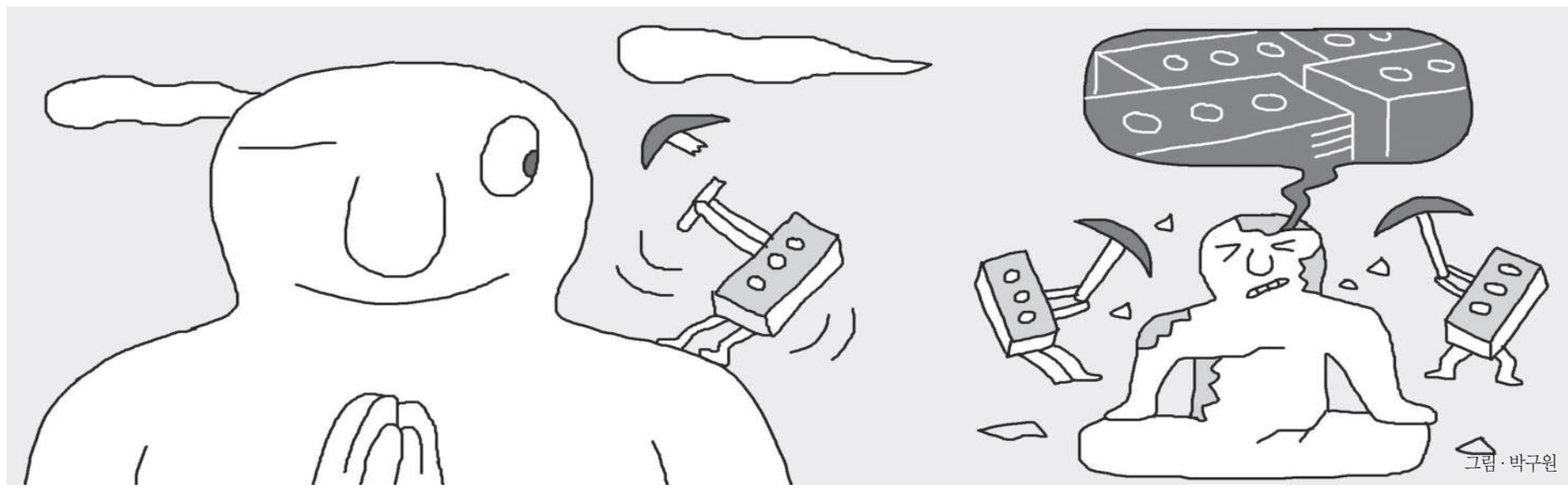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 만들기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㉓ 돈, 그리고 마음


그림 · 박구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온갖 인위적인 기교가 개입하게 되고 자연스러움은 사라진다. 고객은 귀신처럼 알아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듯이 돈을 벌라는 말이다. 돈을 벌겠다는 것을 우선순위 1로 만들지 말고 고객 만족을 우선순위 1로 만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이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만들지 않고 가족과 친구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었다고 말하듯이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 않은가? 미국 부자를 조사한 랜들 존스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안 된다. 부처님은 깨달음조차도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불자는 누구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추구해야 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살다보면 돈이 늘어난다. 돈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돈이 늘어날 때 너무 좋아하면 마가 낀다. 더 큰 욕심을 내다 일을 망치기도 하고 사기에 넘어가기도 한다. 따라서 돈이 늘어나면 너무 좋아하지 말고 담담하게 돈이 늘어나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돈이 줄어들면 누구나 기가 죽고 우울하다. 좋은 기회가 와도 비관적으로 보다보니 기회를 놓치고 돈은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돈이 줄어들면 너무 기가 죽거나 우울하지 말고 담담하게 돈이 줄어드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돈이 늘어날 때 돈이 줄어들 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불교적 방법이란 무엇일까?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불자다. 아무리 법당에서 철야 기도를 해도 돈 앞에 흔들리면 소용이 없다. 돈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본다. 몸은 더럽고 본능적이고 탐욕적이고 마음은 깨끗하고 고귀하다고 보는 사람조차 있다. 불교는 무엇이든 이분법을 경계한다. 불교의 핵심교리는 연기다. 연기법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독자적 실체가 없으니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독자적 실체가 없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현상은 원래 비불교적인 오류인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불교 신도조차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운동을 한 뒤에 인내심과 균형 감각이 생기고 마음이 더 평온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친다. 연세대 전용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체육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행복도가 더 높았다. 안구를 자주 움직이면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하니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양팔을 하늘로 쭉 뻗는 동작을 2분 정도 유지하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한다. 뇌를 다치면 착하고 배려심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난폭하고 자기 중심적인 괴물로 돌변한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 구분이 모호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상대에 의해 존재하기에 우리는 마음몸, 몸마음이라고 부르는게 좋다. 우리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다보니 스트레스가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사가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제는 너무 '마음 마음' 할 게 아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마음은 몸과 구분이 어렵다. 만약 뇌를 다친다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몸의 일부분인 뇌에서 나오므로 몸과 마음이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구분은 '일체유심신조' 라고 몸과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올림픽 2관왕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는 경기 전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금메달을 놓쳤으리라. 그러나 이상화 선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최선을 다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 선수는 별명이 '애 늙은이' 였다고 한다. 아이답지 않게 전혀 동요하지 않아서 붙인 별명이다.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는 잘 흔들리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일본 스포츠 평론가가 아사다 마오의 흔들리는 성향을 분석하면서 김연아 선수를 이기려면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한다고 평했다. 운동 선수에게 흔들리는 않는 자세, 침착한 태도, 강한 정신력은 실력보다 더 중요하고 사실 이게 실력이기도 하다. 우리가 돈 앞에서 이상화 선수나 김연아 선수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면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다.

돈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철학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면 플라톤, 칸트, 헤겔을 연상한다. 우리에게 개똥 철학이라도 있다면 흔들리는 우리를 잘 잡아줄 수 있다. 불교 신도에게는 불교교리가 바로 철학이다. 개똥 철학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불교 철학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철학인가? 철학이 있어야 나의 재산과 남의 재산을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소비 생활을 담담하게 할 수 있다. 철학이 있어야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여 재물을 늘릴 수 있다. 철학이 있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나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철학이 있어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돈 추구하되 끄달리지 않아야
재산 증식에 들뜬 기분이 문제
수행 통해 정념(情念) 소지 중요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둘째 몸과 마음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오랜 수행을 해야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이 변화되어 일시적인 몸과 마음의 변화가 아닌 체화된 몸과 마음의 변화가 된다. 부처님께 절하며 온갖 잡념을 떠올리면 수행이 아니라 그냥 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불자라면 수행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부처님의 제자다.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프로작이라는 약은 우울증 치료제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약을 안 먹기로 또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정신과 관련 약을 먹는다는 것을 끔찍한 일로 생각한다. 정신과에 가보라고 하면 '나보고 미쳤다는 거야?' 라는 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울증 환자가 프로작이라는 약만 먹어도 자살률이 상당부분 하락하리라는 예측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이 증가하다보니 급기야는 건강보험에서 우울증 치료비도 보장해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울증에 약을 처방하는 대신 불교명상을 처방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장해준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고사하고 민간 보험회사도 아마 불교명상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장해주지 않을 거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 병원에서 존 카밧진이라는 교수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명상 기반 치료법을 개발했고 이 치료법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카밧진 교수는 얼마 전에 한국에도 다녀갔다.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명상은 알아차림 혹은 마음챙김(mindfulness)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하셨던 명상법이고 지금도 남방불교에서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명상법이며 위빠사나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알아차림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번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맞는 말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미얀마 등지에서 명상을 배우고 돌아와서 위빠사나 선원을 세우는 수행자도 생겼다. 서양과학계에서는 불교명상의 좋은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쌓여 있다. 아주 오래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에 명상과목이 개설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직도 개설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구글이라는 유명한 인터넷 검색회사는 회사에서 명상을 지원해주는데 명상을 주도한 직원이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다. 구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과 기업인이 명상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명상은 몸의 건강에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좋은 점이 많다. 우울증 치료는 그 중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불교명상을 한다는 것은 정념을 소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정념이란 영어로는 바른 알아차림(right mindfulness)으로 번역하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인 8정도의 하나이다.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고 했다. 금색왕경에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말한 가난으로 인한 고통, 즉 돈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했으니 불교는 돈으로 인한 고통도 해결해야 한다. 부처님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8정도란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념(正念), 정정진(正精進), 정정(正定)의 8가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등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죽는 날까지 정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돈에 관해서 고민할 때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정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매순간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할 때 항상 정념을 소지하고 있으면 고통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의사결정 오류와 행동의 실수를 최소화한다.

정념은 꼭 알아차림 수행법만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화두선으로도 가능하다. 화두선이 어렵다고 느낀 불자가 최근에는 남방불교 위빠사나 수행법을 많이 배우고 있다. 화두선, 위빠사나 모두 어렵게 느껴진다면 염불선을 해도 좋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정념을 잃으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잡념 속을 헤매게 되며 영어로는 '마음이 없는 식사(mindless eating)' 이다. 이에 반하여 '마음이 있는 식사(mindful eating)' 는 잡념에 빠지지 않고 음식의 맛을 충분히 음미하고 집중하는 식사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눈을 감은채로 생각에 몰두하는 사업가는 마치 정념을 소지한 사업가처럼 느껴진다. 돈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잡념에 빠져 있으면 의사결정을 그르치기 쉽다. 정념을 소지하고 있으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의사결정 오류가 최소화되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진다.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죽는 날까지 정념을 잃지 말자.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돈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빈부격차 또한 더욱 벌어지리라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끊임없이 해고되고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하는 일이 반복된다. 삶은 그만큼 불안해지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불자는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위한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염불을 하건 기도를 하건 염불로만 기도로만 하지 말고 수행으로 해야 한다. 수행을 해야 진짜 불자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5천 대중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㊸ 법화경 2

〈법화경〉이 설해진 장소는 누구나 영축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법화경〉은 2곳에서 3회의 설법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서품부터 제10품까지 영축산의 영산회상에서, 두 번째는 11품부터 22품까지 영축산 하늘로 자리를 옮긴 허공회상에서, 세 번째는 23품부터 28품까지 다시 영산회상에서 이루어졌다. 천태지의(538~597)는 〈법화경〉 7권 28품을 1부터 14품을 석가모니불의 자취인 적문(迹門)과 15부터 28품까지를 본래불의 모습인 본문(本門)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 경은 인간에게 가정 다정하게 설법하신 경이라 처음엔 강렬한 포스를 드러내시어 날카롭고 엄하게 시작되어 너무도 섬세하고 부드럽게 "모든 중생은 나와 다름없이 평등하다", "삼계중생이 모두 나의 자식이다" 하시며 온갖 방법으로 제도하셨다.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화칠유(法華七喩)'이다.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화택, 궁자, 약초, 화성, 의주, 계주, 의사의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든 것이다.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안목을 갖추도록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펼쳐 보이는 것은 그들도 똑같이 얻게 하고자 함이며(開), 보여주기 위함이고(示), 깨달음을 성취토록 함이며(悟), 깨달음의 길로 들어오게 인도하기 위한 것(入)이다.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의미다. 우리를 위하여 부처님이 오신 것을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라 했으며, 〈법화경〉 속에서 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마치고 마음을 하나로 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깊은 삼매, 무량의처삼매에 드셨던 세존이 삼매에서 깨어나 사리불을 향해 설법을 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한량이 없어서 그 지혜의 문에 성문, 연각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동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아무나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리불은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을 보고 알았다. 성문, 연각의 지혜로부터 대승의 지혜로 업그레이드시키시려함을 알아차렸다.

여래의 지혜는 광대하고 깊어서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중생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 무수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해야겠구나 싶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니 부처님이 손을 저으시며 "사리불아, 그만하라"고 한다. 청천벽력같은 첫 번째 거절이다. 충격이다. 왜 설법을 거절하신걸까. 지금까지 닦아온 삼승의 길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의 종착점이 아니라 경유지이니 좀 더 가야 한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주셔야 하는데 거절하셨다. 아직 온전한 청법의 말씀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오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인 여래만이 여래에게 설법할 수 있다며 너희 성문과 연각은 들어도 이해 못 한다고 하니 사리불과 제자들은 청천벽력같은 절망을 느꼈다. 사물의 10가지 실상에 관한 것을 다 아는 십여시(十如是)를 통달하여 절대평등을 이해하고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너희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 법을 들어서 알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섰고, 이제 열반을 성취했다고 여겨 제자를 거느리며 교만하게 차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은 중생교화를 하지 않고 도태일로에 서 있는 제자들을 위해 뼈아픈 말을 하고 계신 것이다.

사리불이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야 수행을 완성하는지에 대해 두 번째로 법을 청한다. 부처님은 "그 의미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설한다고 해도 그대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신다. 사리불은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간곡히 세 번째 청을 하게 된다. 부처님이 세 번째 청도 거절하자 사리불과 부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법을 받아 반드시 실행하겠노라 맹세한다. 부처님과 사리불이 이렇게 삼지삼청(三止三請)하는 것을 보고 있던 대중들 가운데, 평소에 우쭐거리길 좋아하던 사부대중 5천 명은 자존심이 상하여 설법을 듣지 않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교육의 방법론으로 〈금강경〉을…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㊷ 금강경 공부로 인재를 만들다

조선시대 교육의 교과서는 성인군자의 말씀인 '사서삼경'이었다. 군자의 법식을 이해하고 마음을 닮게 하여 보통 사람을 군자처럼 지혜롭게 만드는 교육방식, 말하자면 인성교육과 지혜교육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으로 배출한 조선의 인재들은 아상을 닦아 밝아지는 수행을 병행하지 않았기에 정치에서 사색당쟁이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상공업을 천시하는 사농공상의 풍토로 인해 국력이 쇠퇴하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은 되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오백 년간의 지혜교육과 인성교육이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예리하게 통찰한 어느 서양 사회과학자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조선의 교육정신이 경제를 바닥 상태에서 현재의 풍요로운 상태로 만드는 데 잠재적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된 결정적 힘은 조선시대의 교육이 아니라, 선진국을 따라잡는 교육 즉 지식교육과 모방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경제 성장에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국을 모방하는 지식교육 형태로는 창조적 두뇌개발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벽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재들은 해외유학 시 번번이 미국 등 선진국 학생들에 대해 많은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질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운 정답만 찾는 교육, 지식만 배우는 교육으로는 창의성 교육을 받은 선진국의 학생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에는 귀납법과 연역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법은 경험이나 정보를 토대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납법으로 얻은 진리는 완벽하지 않은 경험이나 정보를 토대로 하였기에 이로부터 얻어진 진리 역시 불완전한 진리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역법은 올바른 전제를 토대로 하는 방법으로, 이때 얻어진 진리는 100% 옳은 진리, 완전한 진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연역법은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한 진리 탐구 방법이기에, 비록 그 방법이 서양에서 시작되었지만, 동양에서 더 활용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제거하지 않고 단순 지식이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얻은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라 하였는데, 이는 귀납법적으로 얻은 지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천재가 사라지고 도인이 부재한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귀납법에 의존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발견된 진리를 현장에 적용하여 얻은 교육이나 경영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강경〉과 같은 고전의 가르침을 기본 전제로 시작하는 연역법에 의한 경영 또는 교육이 존재한다면, 이 방법은 당연히 귀납법으로 제시된 것보다 더 완전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색즉시공(色卽是空) '이 뭣고'

색(色)이란 유형(有形)을 말하고, 공(空)이란 무형(無形)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서로 통하고 있는가? 그러나 알고 보면 바위가 허공(虛空)이고 허공이 바위이다.

예를 들어 바위를 자꾸 나누어 가다보면 분자(分子)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고, 분자는 또 원자(原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원자도 소립자(素粒子)들이 모여서 생긴 것으로 결국 소립자 뭉치인 것이다. 그러면 소립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은 원자핵 속에 앉아서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을 말하고 있다. 스스로 충돌해서 입자(粒子)가 문득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있고, 바위도 무정물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인 소립자(素粒子)를 세분화하면 머리카락 굵기의 1조분의 1인 쿼크(Quark)인데 원자보다 십만배 이상 작은 원자핵 안에서 자동으로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宇宙)를 형성(形性)하는 근본(根本)은 에너지, 질량(質量), 그리고 광자(光子)이다. 상대성원리인 E=mc2의 공식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하나이며 부증불감(不增不減)이다.

질량이란 유형의 물질로서 깊이 들어가면 물질인 소립자이고, 에너지는 무형인 운동하는 힘이다. 연기법(緣起法)과 공성(空性)의 세계서 본다면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부증불감(不增不減)이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상주법계(常住法界)는 무진연기(無盡緣起)가 있을 뿐이니 이것이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이다.

무진연기상의 일체 생명은 성상일여(性相一如)이며 물심불이(物心不二)여서 유정무정의 구별이 없고 생명은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의 총칭(總稱)이다.

그러므로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만 생명의 참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니, 개개생명 전체가 절대여서 생명거래가 없는 것이다.

계성변시장광설(溪聲便是長廣說) 산색개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게(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하거사인(他日如何擧似人)

"계곡서 흘러가는 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색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로구나. 밤새 쏟아내는 팔만사천 부처님의 감로 법문을, 뒷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 이 시(詩)는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진리와 선의 세계가 아님이 없는 무처불시선(無處佛是禪)의 경계를 읊은 소동파의 오도시(悟道詩)이다.

소동파가 옥천사라는 절에 승호 큰스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니, "대인(大人)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나의 성씨는 칭(秤)가요" 천하 스님들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이라고 하였다. 이에 스님이 '악' 하고 할을 하시며 "이 것이 몇근이나 됩니까?" 하고 반문하니 그 한마디에 소동파는 앞뒤가 꽉 막혀버렸다. 그래서 그 길로 상총 스님을 찾아가 '할' 하는 도리를 묻자,

"어찌 무정설법은 듣지 못하고 유정설법만 들으려 하는고"하며 꾸짖으니, 말을 타고 계곡을 내려오다가 오로지 무정설법이라는 의정에 모든 생각, 분별이 사라지며 폭포수 소리에 개오한 것이다. 우주(宇宙)에 가득찬 그대로가 반야(般若)이고, 시제법공상(是諸法空相)이며, '이 뭣고' 이며 증감(增感)이 없는 전 우주인(宇宙人)이고, 본래완성이며 본래구족(本自具足)이다.

또한 '이 뭣고'는 한없이 온갖 법을 창출하고 섭수(攝受)하되, 일찍이 일체법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빛이 4차원을 넘어선 공간에서는 영(靈) 혹은 영적(靈的) 에너지로 존재한다. 이 영적 에너지는 무형으로서 생명의 근본이며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불성이고 진여본심이며 '이뭣고'인 것이다.

〈낭양주 선재사 주지〉

기봉 전통 범패 의식 강원

전통 불교의식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식 전문 학인을 모집합니다.

◆ 응 시 자 격 ◆

① 입 학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생(음악,국악과) 등 일반
② 제 출 서 류 : 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사본, 해당자)
③ 전 형 일 정 : 2019년 1월 8일까지
④ 개강 기초반 : 2019년 1월 8일 (매주 화요일)
⑤ 상주 권공 : 2019년 1월 11일 (매주 금요일)
⑥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⑦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대흥로 26번지 대은사

※상 담 문 의 : 010-9170-3631

법고무 특강

개 강 | 2018년 11월 19일 (매주 월요일) ~ 2019년 1월 28일 까지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까지
지도 강사 | 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 조교)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지구촌 15바퀴의 원력"

지구촌공생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지난 2003년 금산사를 주축으로 창립해 활동해온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11월 24일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창립자이자 이사장인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부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이근재 신도회장 등 불자 및 후원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지난 15년간 지구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남길 수 있던 것은 1만9천여 후원자들과 250여 명의 해외활동가들이 밑거름이 됐다"며 "정치와 종교, 언어와 피부색의 차이를 넘어 세계일화의 정신으로 지구촌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헌신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前케냐지부장 탄하 스님의 활동소회 발표와 지구촌공생회 15년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가 발표됐다.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15년간 생명의 물을 뿜어내는 2,488기의 식수시설, 아이들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72개의 교육시설, 자립을 꿈꾸게 하는 5곳의 자립사업장과 캄보디아 지뢰제거현장, 긴급구호 활동 등을 통해 60여만 명의 지구촌 이웃들의 생명을 치유하는데 주력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겨울"

광주불교계, 자비의 연탄 나누기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는 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11월 28일 광주 동구 소태동에서 '2018 자비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등 지역 스님들과 광주 운전자불자회, 광주 동구청 불자회 등 신행단체 회원 50여 명이 동참했다.

전달식은 이날 이용림 할머니(78) 댁에 연탄 300장을 배달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30세대에 연탄 총 2만4000장을 순차적으로 지원했다.

동현 스님은 "따뜻한 마음을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 작은 정성이지만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생명의 등불과도 같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0년 대불청 100주년 준비"

Interview

하재길 제30대 대한불교청년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0년 준비 및 정리사업 실시

지구별 활성화 방안 모색 계획

세대별 3개 그룹 활성화 추진

대한불교청년회 제30대 중앙회장에 하재길(법명 도림) 씨가 당선됐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70차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단독입후보한 하재길 前 경기지구장을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하재길 중앙회장 당선자는 취임소감으로 "대불청은 2020년 100주년을 맞이한다. 이 시점에서 중앙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대불청 내부의 조직 발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내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34년차 중앙회장, 대불청 경기지구장 등을 역임한 하 당선자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불교공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공익사업 TF팀 구성 △100주년 전략사업 로드맵 재구성 및 원만회향 △남북 청년교류 및 6.15 공동선언과 남북 청년불자대회 준비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하 당선자는 대불청 100주년 관련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에 기존 100년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두 번째로는 100주년 행사를 통해서 각 지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하 당선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계승 부분에 있어서 CMS후원은 성과가 미비하다면 일정부분 바꿔야 한다. 또 재정 자립을 위해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꽃생협이나 새롭게 MRO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 당선자는 임기 동안 대불청 내 세대별 그룹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 당선자는 "대불청은 고령화란 화두를 갖고 있다. 임기직은 50대까지 선출권이 있는 것으로 한정됐지만 일반회원은 만 18세 이상부터 참가가 가능해 연령제한이 없어 모든 연령대가 혼재돼 있었다"며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있다 보니 세대 간 격차가 내부적으로 존재했다. 2030세대가 주축이 된 미래그룹과 4050세대가 주축이 된 중견그룹, 60대 이상으로 구성된 리더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당선자는 "이를 통해 세대별 이질감이 해소되고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당선자는 "대불청 내 젊은 세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젊은 세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법회나 수련회 중심이 아닌 디지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젊은 세대가 또래끼리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24人 선정

국회의장상 경륜 스님 등… 12월 6일 시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이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선정 결과를 11월 29일 발표했다. 유공자들은 오는 12월 6일 서울 종로서 열리는 '2018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외이웃을 보듬고 불교복지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자 해마다 유공자를 선정해왔다. 지난 9월부터 1달간 추천받은 불교계 법인, 시설, 단체 가운데 총 24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유공자선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복지시설·단체운영 △후원·자원봉사활동 △여성가족복지 증진 등 다양한 영역서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청소년 복지증진에 힘써온 경륜 스님(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총무원장 표창은 고령사회 노인복지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12명의 개인 및 단체가 수상한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통해 복지 현장의 중심 역할을 해온 법등 스님 등 3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보련 스님 등 3명은 장관상을 받는다. 보련 스님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장애인 자립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세월호 사고 관련 봉사활동에 앞장선 전연순 봉사자 등 2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한 김성연 국장 등 3명이 수상한다.

복지재단은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셔서 고심 끝에 수상자를 선정했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정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공로상-경륜 스님(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총무원장표창-성언 스님(직지사복지재단 상임이사)·김익회(충주시니어클럽 관장)·종로노인종합복지관·박주임(서울노인복지센터 부장)·최창수(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부장)·권진우(의성군노인복지관 과장)·강순옥(붓다마을 사무국장)·㈜한사랑봉사단(문수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이매래(학산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구효성(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박종선(사회복지법인 수효사효림원 소속)·라이나전성기재단

△보건복지부장관표창-법등 스님(사회복지법인 마곡 사무국장)·화정 스님(명법사복지재단 이사장)·정업 스님(문수마을 원장)

△보건복지부장관상-보련 스님(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김진우(제주양로원 원장)·신명숙(효지어린이집 원장)

△여성가족부장관표창-연제만(금호청소년독서실 관장)·이경화(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김성연(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이연분(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전연순(금비예술단 소속) 김지원기자 jayjace@hyunbul.com

올해의 불교활동가 선정

수담마 스님 등 제15회 활동가 지원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은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탄허강숙 사무실서 제15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스리랑카 수담마 스님,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임형균 호국충정사 군포교사, 이옥빈 불교여성개발원 베트남팀장과 단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에 활동기금을 전달했다.

김지원 기자

수험생 대상 조혈모세포 교육

생명나눔, 광동고서 실시… 240여 명 참여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 28일 의정부 광동고교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교육'을 시행했다. 수능을 마친 3학년 학생 240여 명은 이날 '조혈모세포 이식'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지원 기자

진신사리 5층석탑 봉안

팔공산 해운정사 11월 25일 법회 열어



한국불교조계종 팔공산 해운정사(주지 승진)는 11월 25일 부처님진신사리 5층석탑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금둔사 조실 지허 스님과 한국불교조계종 스님,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증명법사 지허 스님은 "불교의 형상인 탑은 부처님이시니 삼독심 업장을 버리고 불사 인연공덕으로 불성을 깨우쳐 부처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방석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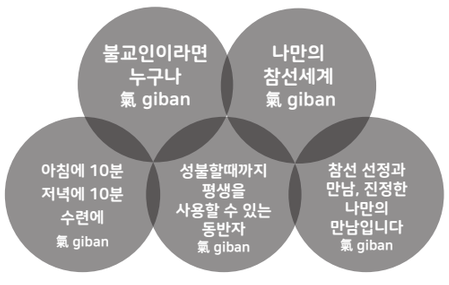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74개의 명당자리가 한 곳에 모여있는

화제의 신간

신비의 명혈명당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천하(天下)를 지배한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세상(世上)을 변화시킨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입신양명(立身揚名)한다!



천하대지(天下大地)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이 한 장소에 74개씩 네 곳에 296개가 모여있는 명혈명당(名穴明堂)의 실체(實體)를 밝히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468쪽 / 정가 30,000원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불지혜佛智慧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통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불지혜로 꿰뚫어 자상히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론·원정주해·주진통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신국변형판 / 936쪽 / 정가 70,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집결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바타 삼바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제두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棋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대승경전 백미 〈화엄경〉으로 초대

통도사 화엄산림, 12월 7일 입재 릴레이 법석

전국 최대 규모 화엄산림 법석이 통도사에서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30일 간 경내 설법전에서 '제48회 통도사 화엄산림 법회'를 개최한다. 전국 최대 규모 〈화엄경〉 법석으로 동안거 기간 불자들에게 화엄의 세계로 안내할 대강백 29명이 나선다.

입재는 12월 7일 오전 11시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해 같은 날 오후에는 무비 스님이 법좌에 올라 '화엄경 현담'을 주제로 법문한다. 이후 법석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단, 일요일 오전 법석은 10시 20분에 앞당겨 시작한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저녁예불 후에는 설법전에서 법성게 정진을 진행하고, 일요일 오전 법문 후에는 천도재를 봉행한다. 법성게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친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이며 마지막 회향법회 후 대중들은 위패와 다라니를 들고 금강계단을 한 바퀴 돈 후 소대의식을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통도사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자, 五戒 받아 참된 불제자로

조계종부산聯, 제1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계를 받들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장궤합장을 한 1000여 명의 대중이 불법승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해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1월 24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신심을 고취하고 계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부산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이 제안하고 연합회 스님들이 합심해 법석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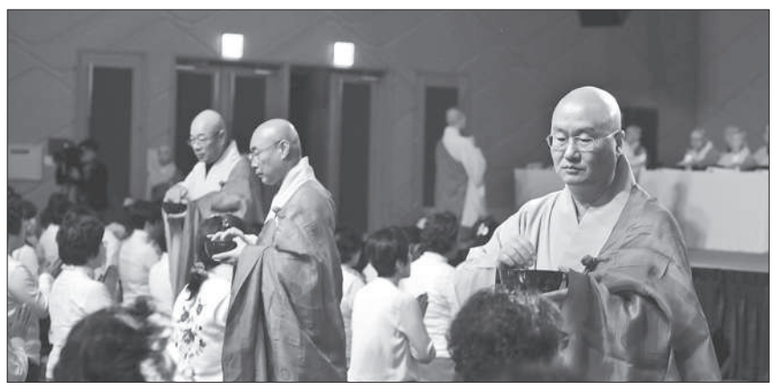
수계법회 전 불자들은 천수경 및 참회진언을 염송했으며 연합회는 개식을 선언해 시작을 알렸다. 이후 향을 피워 찬탄하고 대비주를 함께 봉송했으며, 불자들은 삼보를 예경하고 청하는 청성을 진행했다. 스님들은 삼귀오계를 설명하고 오계를 내리며 관정수를 전달했다. 수계자들은 참회진언을 외며 관정(灌頂)을 받았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관정을 위해 5대 보궁인 통도사, 상원사, 건봉사, 법흥사, 정암사서 직접 담아온 관정수를 수계자의 이마에 찍으며 계를 지켜 불제자로 살아가길 기원했다. 수계자들은 계를 받고 지킬 것을 발원했고, 존중아사리 스님들과 회장 심산 스님의 인사말로 수계의식은 회향했다.

전계사는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존중 아사리는 前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불 스님과 수진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원범 스님, 지현 스님, 정현 스님, 화랑 스님 등 8명이 담당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원허 스님이 유나, 통도사 노전 영산 스님이 인례를 맡아 수계법회가 진행됐다.

계를 청하는 대중의 요청에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삼귀의 오계를 받은 공덕이 무엇보다 크다고 격려하고, 스님들은 계를 설하며 지킬 것을 당부했다.

'戒'는 부처님 제자의 근본
성우 스님 전계대화상으로
5대 보궁 관정수로 관정의식
"삼귀의 · 오계는 크나큰 공덕"



조계종부산연합회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관정을 하는 모습.

성우 스님은 "공덕 쌓는 일을 많이 했으리라 믿지만 오늘 삼귀의 오계를 받은 공덕이야말로 크나큰 공덕"이라며 "삼귀의를 함으로써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존중아사리 경선 스님은 "오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영배 스님은 "오늘 다시 오계를 받아 지녔으니 신심을 견고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수계를 받은 대중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은 공덕으로 삼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부처님 일을 낱낱이 원만성취하며, 이 수계 공덕을 온 법계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베풀 것"을 발원하며 화답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이번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며 "조계종을 대표하는 자존심이자 정체성, 종단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내년 1월 성도재일을 맞아 승보공양법회 개최를 예고했으며, '불기 2562년 재가동안거 수행결사'를 수계법회와 함께 입재해 2019년 1월 22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훈한 마음 나누는 연탄 배달"

팔공총림 동화사, 소외이웃에 연탄 4500장 나눠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11월 19일 지역의 저소득 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를 펼쳤다. 행사에서 사회복지법인 동화사복지재단(이사장 효광)과 동화사 신도회가 동화사 입구 학부마을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탄을 사용하는 주민 9가구에 500장씩 총 4500장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을 비롯해 동화사 각 국장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회 임원 등 50여 명이 동참해 함께 연탄과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찬바람 부는 겨울에 앞서 불교계가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연탄을 마련했다"며 "이런 나눔의 날들이 많을수록 이웃과 사회에 따뜻한 마음이 퍼져 각박한 세상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다"고 말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매달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군부대 짜장면 급식 지원, 무연고 영가 천도재 등의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내년에도 자비나눔에 관심을"

광주NGO, 송년모임 잇달아

연말을 맞아 불교단체의 송년모임이 잇따르고 있다.

(사)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는 11월 25일 광주 수자타 2층 연회장에서 '북한 이주민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기금모연과 기념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동현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원일 스님(前백양사 주지), 보응 스님(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을 비롯해 광주지역 사찰 주지스님과 북한이탈주민, 후원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라이온스클럽 광주지회와 금호주택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을 후원했으며, 각종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도제 스님은 "지난 1년간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늘 격려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더해피로드(대표 혜공)도 같은 날 수자타 3층 연회장에서 '나눔으로 빛나는 후원자의 밤' 행사를 열고 한 해를 정리했다.

행사에서는 운영위원장에 도성 스님, 의료봉사단장에 김관율 원장을 위촉했다. 또한 1년간 봉사활동에 모범을 보인 김규수 · 심상만 · 이경미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민관군경 함께 어울린 문화마당

순창사암연합회, 11월 29일
국방의무 다하는 청년 격려

전북 순창사암연합회(회장 동산, 대모암 주지)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초청해 민관군경 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11월 29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동산 스님을 비롯해 일광사 주지 선동 스님, 순평사 주지 타홍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황숙주 순창군수, 정성균 순창군의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순창사암연합회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이 배구를 즐기고 있다.

순창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순창 적성부대, 순창 경찰서 의경, 순창 상비역중대, 순창군청 사회복무요원들은 배구와 족구 등 운동경기와 공연, 각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패기 넘치고 건강한 젊음으로 국방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무한한 감동과 든든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군경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자리를 통해 상호 우정과 화합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관계자들은 "사회안전을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순창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즐거운 축제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장병들에게는 기념품과 바비큐 등 푸짐한 점심식사와 음료, 간식이 제공됐으며 장기자랑을 통해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푸짐한 경품이 주어졌다.

한편, 순창 사암연합회는 정기적으로 순창경찰서 의경과 군부대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전법활동을 위해 문화강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정신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족 포교' 해답 논한다

12월 9일 혜원시민포럼

도심포교 전법도량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9일 오후 2시 혜원정사 교육원에서 '가족 포교, 우야꼬?'라는 주제로 '제2회 혜원시민포럼'을 개최한다.

시민포럼은 '가족'을 주제로 가족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포교 전략을 논하기 위해 개최된다. 1부는 '부처님, 가족을 만나다'란 주제로 △가족의 초기 불교적 이해(윤종갑 동아대 교수) △가족의 대승불교적 해석(안성두 서울대 교수), 2부는 '탈근대의 가족들, 부처님을 찾다'란 주제로 △동시대 가족의 얼굴(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가족 포교의 눈길과 발길(백도수 능인대학원대 교수)이 발표된다. 3부에서는 참가자들의 가족 이야기를 풀어내고 함께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다. 논평은 조준호 고려대 교수, 김재권 동국대 교수, 허남결 동국대 교수, 전법도량 의장 만초 스님이 담당한다. (051)866-777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글쓴이 : 혜천법사

◆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祕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祕法) 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1. 생전예수재는"왜"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2.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3.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측면에서알아두면도움되는주택풍수의좋은조건, 나쁜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 031)768-8414~6 | Fax 768-8413

4차 산업혁명 발맞춘 '좌종' 탄생

日 불교용품 제작회사, IoT 좌종 개발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구인 좌종에 첨단 IoT(사물 인터넷)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좌종이 개발된다. 지난 11월 22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PR타임즈"는 이 좌종의 개발현황을 특별 보도했다.

IoT(사물인터넷)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불교용품 전문제작회사 '사쿠지마(作島)'는 이 IoT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좌종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좌종의 이름은 '보살피다'는 뜻의 일본어 '미마모루'와 좌종을 뜻하는 단어 '오링'을 합쳐 '미마모링'이라고 붙였다.

일본의 불자들은 대부분 가정에 불단을 모시고 예불을 올린다. 이 불단에 빠지지 않는 불구가 바로 좌종이다. 사쿠지마사의 사장 사쿠지마 유타카 씨는 "한 스님으로부터 'IoT를 활용한 좌종은 없는가?' 라는 문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때마침 독거노인인 고객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독거노인의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불구의 아이디어 회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보살피는 좌종 뜻 '미마모루'
울림 감지해 문자 전송 가능
가정 불단 모신 독거노인들
고독사 문제 해결 가능성도
2019년 4월경 출시 예정

회의에서 "매일 예불이나 공양을 올릴 때마다 좌종을 울리는 것이 일상관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좌종에 IoT를 접목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왔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는 답이 나오자 개발이 최종 결정됐다.

미마모링은 좌종의 좌대에 센서를 부착한 구조. 좌종이 울릴 때마다 센서가 감지해 독거노인의 가족에게 정해진 문자메세지 등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사쿠지마 씨는 현 단계에서는 시범제품이 개발, 기존 고객 중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개발될 IoT좌종 '미마모링'의 이미지 사진과 시범제품. 사진출처=PR타임즈

사쿠지마 씨는 "일본에서 연간 약 3만 명의 고독사가 일어나는 등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중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결정했다. 또 "불구인 좌종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매일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고 개발의 목표를 발표했다.

시범제품의 영상 공개와 함께 30만 엔(한화 약 300만원)을 목표로 지난 22일부터 펀딩이 시작됐다. 펀딩은 시작한지 겨우 나흘 만에 목표액의 약 42%에 해당하는 12만엔을 달성하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펀딩을 통해 완성된 제품은 오는 2019년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펀딩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스스로 출가자라고 밝히며 "이러한 불구가 생기길 오랫동안 기대해 왔다. 제품이 개발되면 모든 신도들에게 권하겠다"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두 세대가 함께 살 수 없는 많은 가정에 꼭 필요한 불구"라며 성공적으로 제품화가 되기를 기원했다.

사쿠지마 사장은 "현재 일본의 독거노인은 약 600만 명. 독거노인과 그 가족, 주변인들 모두를 돕는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펀딩과 기술개발등 모든 조력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내 정치 생활 근본은 불교"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주지사 임기 2주년 인터뷰

美 본토와 다른 문화수용
연민사상이 정치서 중요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가장 유명한 불자 정치인 중 하나인 미국 하와이주지사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 사진). 그는 기후변화, 이민자 등 각종 주 현안 해결을 위해 불교 사상을 접목시킨다고 밝혔다. 불교는 그에게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11월 26일 데이비드 이게의 임기 2주년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종교가 불교인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시사했다. '르네상스'와 같이 다인종 · 다문화로 구성된 하와이주에서 '불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나는 하와이가 본토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선 하와이 원주민들은 다른 문화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매우 존중하는 자세를 갖췄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출신에 대해 끊임없이 인지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나는 항상 불교도였고, 이는 (기독교 문화가 중심인 미국인들에게) 다른 종류의 경험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불교의 '연민' 사상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불교 교육은 지역사회의 더 넓은 정서에 반영될 수 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연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홈리스(homeless) 복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홈리스를 챙겨야 하나' 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그것은 불교 신념과 철학의 핵심 가치로부터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다이어트 전쟁' 선포한 태국 스님들

공양물 서구화 비만 급증
'승려건강헌장' 등도 출간


태국 스님들은 비만 탈출을 위해 최근 다이어트와 전쟁을 선포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스낵류 및 단 음료로 주로 제공되는 탁발 공양물이 지목됐다. 사진출처=AFP

태국 스님들 사이에 때 아닌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 매일 아침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올린 공양물이 서구화되면서 비만에 걸린 스님들이 급증했기 때문.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신이 지난 11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 스님들은 비만 탈출을 위해 최근 다이어트와 전쟁을 선포했다. 피핏 사라킷위농(Pipit Sarakitwinon · 63) 스님은 다이어트로 30kg 감량에 성공했다. 산책과 운동을 매일 병행했다는 피핏 스님은 "다이어트 시작 전에는 100m를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한때 체중이 180kg에 달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원인은 '탁발'이다. 태국 스님들은 매일 아침 탁발을 해 신도들로부터 공양을 받는다. 태국은 전 국민의 95%가 불교도인 불교 국가로, 태국인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제공해 선업(善業)을 쌓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공양물이 대부분 스낵류나 단 음료로 제공되다 보니 스님들이 자연스레 비만에 노출됐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태국 스님들은 낮 12시 후 식사를 할 수 없어 오후에는 주로 단 음료만 섭취한다. 이를 과다 섭취한 것이 문제인 것.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 합병증을 불러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는 정부 차원의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태국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비만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국 스님들은 48%가 비만이며, 이 가운데 42%가 고혈압이다.(출랄롱코른대학교 2016년 실시 조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승려들의 건강한 음식섭취를 권고하기 위해 '승려 건강 헌장'을 출판하는 등 승려들의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있다. 태국 당국은 해당 출간물을 비롯해 승려들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들이 신도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할 이유도 마땅히 없다. 탁발하는 공양물을 가리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지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에게 담배도 준다. 애연가였던 조상에게 바치는 의미"라면서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음식을 잘 선별해 공양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스마트 결제로 시주하세요?

中, QR코드 보시 받는 스님… 가짜승려 비판도

인터넷에서 화제로 떠올라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결제로 보시를 받고 있는 스님. 사진출처=이존뉴스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하는 스마트 결제가 일상화된 현대사회. 중국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시금을 받는 스님이 화제다. 지난 11월 23일 홍콩의 인터넷 매체 '이존뉴스'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화제인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 속에 합장을 하고 앉아 있는 노스님은 '불문제자 명광법사'라고 자신의 법명을 쓰고, 중국에서 탁발을 의미하는 '화연(化緣)'이라는 글자를 크게 쓴 노란색 판을 목에 걸고 있다. 스님의 무릎에는 두 종류의 QR코드가 찍힌 종이가 있다.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는 "촬영지는 중국본토의 모처로, QR코드를 찍으니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계좌로 연결됐다"고 전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누리꾼들은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탁발법" "스마트 결제로 보시하면 공덕이 포인트로 적립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시각장애인에게 손목을 입힌 앵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내 폭력배들이 사용하는 앵벌이 수법이다. 실제 탁발승들은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찰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가짜 승려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 문화권에서는 탁발승을 가장한 앵벌이나 가짜 승려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대만에서는 시내 탁발로 유명했던 한 비구니가 실제로는 가짜 승려로 고급 외제차와 귀금속을 소지하던 것이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사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삼라만상 회통하는 차명상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5. 자비다선 차명상

3) 차명상의 특성



명상 수단인 생각 · 감정 · 언어
차명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다르마 아는 순간 지혜 생겨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 발현

色 · 香 · 味 흐름과 일미

명상의 수단인 생각(알아차림, 사유, 상상)과 감정, 언어는 그대로 차명상에서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차명상의 특성은 무엇일까? 법(다르마)을 바르게 아는 지혜와 자비를 위해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상상, 사마타와 위빠사나, 자비가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차의 색 · 향 · 미가 있다. 차의 색향미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을 상호의존으로, 인과의존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차의 이야기가 차명상의 특성이 된다. 차의 색향미 이야기 흐름을 통하여 다르마를 드러내고 지혜가 생기도록 명상하는 것이 차명상이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이 다르마로 흐르게 하는 상상과 상상 속에서 알아차림과 추론이 작용하고, 언구의 멘트로 다르마가 드러나도록 한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가 일어나게 하는 틀을 가지게 한다.

모든 것의 공통되는 현상이 다르마이다. 그러므로 회복해야할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이며 또한 마음의 본성이 명상의 수단도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매듭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 명상이 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하면 하나의 명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삼라만상 우주 모든 것을 일미(다르마)로 회통되게 하는 것이 차명상이다.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상상, 알아차림과 사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네 가지 틀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언구, 비유, 심리, 상호의존, 인과, 변화, 고(苦), 자아 없음과 자성 없음이 있다. 이 네 가지 틀과 구성 요소는 망념과 망상이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다르마로 보게 한다. 즉, 다르마(一味)를 보게 하는 집중과 사유통찰, 자비라는 명상 수단이 생기게 한다. 또한 네 가지 틀이 그대로 다르마를 보는 명상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잠재되어 있던 진금과 같은 마음의 본성인 공적함이 네 가지 틀의 힘으로 인하여 무지와 번뇌 망상의 껍질을 깨고 나타나면서 번뇌 망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이름하여 지혜이다.

이 지혜는 특히 차명상 틀의 요소 가운데 다르마가 마음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한다. 지혜의 특성이 무지와 번뇌 망상을 없애고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삼라만상 모든 것의 우주를 공성 하나로 꿰뚫는 일미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해하는 그 마음도 일미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지혜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마음에서 도덕성과 삼매와 지혜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 지혜로 하나로 꿰뚫는 일미를 실천한다. 그 실천이 자비행이다. 자비행에 자비심의 차원이 있다. 중생연자비에서 법연자비, 무연자비로 상승한다.

전통적인 명상체계-회통

자비다선 차명상은 다선일미(茶禪一味) 차명상법 안에 있는 열두 가지의 다선법 중에 핵심이 되는 명상 방법이다. 다선일미 차명상을 통해 일미(一味)를 깨닫게 될 때 무연자비가 실현된다. 그래서 자비다선 차명상이라 하는 것이다.

열두 가지의 본 수행법은 마치 남방의 수행 논서인 〈청정도론〉에 사마타수행법이 40여 가지나 되듯이, 기본 차명상으로 ①깨침의 다실 꾸미기 뜻 새기기 명상 ②행다선 ③자비다선 ④오색차명상, ⑤색 한마음 다선 명상 ⑥향 한마음 다선명상 ⑦맛 한마음 다선 명상 ⑧연꽃 찻잔 일곱 가지 뜻에 들어가기 명상 ⑨색향미 감로차 마시기 명상 ⑩주인과 손님, 다선일미 차명상 ⑪다선시 명상 ⑫화두차 명상 등 응용의 차명상법이 50개 내지 60개 이상 된다. 차명상법을 나누면 여러 개의 명상이 되고 통합하면 하나의 명상이 된다. 이 모두가 사마타, 위빠사나로 다르마(法)을 알아차려 모든 것을 한 마음, 일미로 통합되고 회통하기 때문이다.

요즘의 대다수 명상법을 보면 집중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지혜를 얻는 위빠사나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거의 "명상힐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제시를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명상은 맛보기식 명상, 또는 1회성 명상이라고도 한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며 다르마(法)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집중의 삼매와 사유통찰의 지혜는 다르마를 알아 하나로 회통시키는 수단이다. 수행법이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딱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원효 스님께서는 '범망경보살계품사기(梵網經菩薩戒品私記)'에서 열반이라는 성에 사대문(四大門)이 있고 사대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데 그 열반의 성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하나가 된다고 설하였다.

굉장히 많은 길이 있어도 사마타와 위빠사나뿐이라는 것이다. 초기경전에는 처음에 사마타수행을 하고 난 뒤 위빠사나수행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위빠사나수행에서 사마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쌍수(雙修)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수승한 네 번째 길이 있다.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길이다.

이 수행 중에서 세 번째 길인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을 같이 닦으면, 명상수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명상은 바로 지와 관이 있고, 지관(止觀)을 쌍수(雙修)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의 언구를 통해 법속에 있는 진실을 깨닫는 것도 매우 빠른 방법이다. 다선시(茶禪詩) 명상에서 이 방법을 쓴다. 이러한 빠른 방법은 모두 다르마를 깨닫는 방법이기도 한다. 다르마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긴다. 다르마는 무시이래(無始以來)의 것이며, 일체 모든 것이 다르마를 의지하고 있으며, 열반과 윤회도 다르마이기에 다르마를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다르마를 바뀌지 않는 불변과 인연을 따르는 수연(隨緣)으로 압축하며, 불변과 수연이 모든 것의 근본인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닌 제일의 뜻인 공(第一義空)으로 둘이 아니므로 주객이 없어 하나이며 공의 한 가지 맛이므로 일미이다. 그래서 다르마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맛으로 꿰뚫어 보고 아는 지혜이다. 즉, 일미의 지혜이다. 지혜의 내용이 일미이므로 지혜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무정(有情無情) 모든 것을 다르마인 일미로 회통하는 것이 다선일미의 차명상이며 자비다선 차명상인 것이다.

회통이란 모일 회(會), 통할 통(通)으로 스마트폰과 같다. 스마트폰 안에는 휴대전화 기능,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TV, 라디오 방송 시청취 기능, 카메라, 문서작업기능 등 모두 다 있다. 이것을 펼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난다. 이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하게 한 것이다. 차명상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선일미 차명상, 일미다선이라고 하며 자비다선 차명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一味로 꿰뚫는 회통

'깨침의 다실 꾸미기 뜻 새기기 명상'과 행다선과 자비다선과 오색차명상, 색 한마음 다선 명상 등의 차명상을 통하여 다르마를 아는 지혜가 생기면 지혜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혜라는 마음만 있을 뿐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혜는 차명상의 틀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르마를 알게 되고 그때 일어난다. 번뇌망상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마음을 격발시켜준다.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이고 다르마는 지혜와 짝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혜가 다르마를 알아보고 다르마에 의해 마음이 지혜로 나타난다. 차명상의 지혜 관찰로 한 덩어리의 마음이 발견되고, 그 마음이 찰나로 사라져도 마음은 존속하는 불연속의 연속체임을 알게 되고, 이 마음을 자아라고 이름 하는 것도 알게 된다. 불연속의 연속하는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마음의 본성이 자성이 없어 청정함을 깨치게 된다. 즉, 조작이 없어 본연이며 생로병사가 없어 불사(不死)이며 주객과 높낮이가 없어 평등하며 진여(眞如)인 무아의 아(我), 공과 불공의 제일의공(第一義空)으로 본래면목이다. 그래서 번뇌와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밖으로 펼쳐지는 현상은 인연을 따라 형상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변화(無常), 상호의존(緣起)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인 공적 그대로 본래면목은 바뀌지 않는다. 마치 금으로 장식구를 만들어도 금의 노란 성품이 바뀌지 않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마음의 잠재되어 있던 진금과 같은 공적한 성품이 현실화되면서 인연따라 갖가지의 모습을 하더라도 진금과 같은 하나의 맛으로 변함이 없다. 이것이 일미로 회통하는 과정이다.

차명상을 통하여 지혜가 생겨서 하나로 꿰뚫어 갈 때 만나는 모든 생명을 감성적인 사랑과 연민으로 대하게 된다. 나아가 한량없는 마음을 계발하여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다선의 자비이다.

자비다선 차명상의 일미로 회통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야기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 전개하는 틀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상을 활용하는 명상법은 2,600년 전에 붓다께서 가르쳐주신 관상(觀想)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그 이야기를 따라서 가다보면 집중하는 사마타가 그 안에 있고, 지혜를 얻는 위빠사나가 그 안에 있다. 특히 위빠사나 중에서 사유 분석하여 통찰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네 번째, 그 결과 모든 것은 변한다는 한 가지 맛으로 회통하는 다선일미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상호의존의 연기(緣起)와 주재하는 자아 없음[無我]과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自性] 없음인 공(空)이라는 한 가지 맛으로도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모두를 꿰뚫는 지혜를 얻고, 다선일미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다. 상상과 이야기, 그 속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다르마를 알게 되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이 명상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놓아버림과 시원함이 있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제100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9년 1월 2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굳셀 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24 호 현대불교
2018년 12월 5일(10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부처님 법은 내가 작용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속에 있다

꺼지지 않는 불기둥에 대해서

질문 큰스님 법문 중에 어느 소녀가 홀로이 배고픔도 이기지 못하고 추움도 이기지 못해서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불을 지펴서 그 불씨는 그대로 불기둥이 돼서, 천 길이나 되게 불길이 솟았고 그 둘레는 만 둘레나 되니, 오고 가는 사람이 모두 두루 옷을 벗고 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꺼지지 않는 불기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 요거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꿰고 뚫어서 인간 주처 자체하고 결부된 이 자체를 바로 전력이라 해도 좋고 에너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요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에너지가 불타고 있듯이 있는데, 그것을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능력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 무한의 기둥, 불기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 이 마음으로써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병이 났으니 이 병을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면 그 불기둥에서 자연적으로 약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빈손이 하나 나와서 병이 난 사람한테 결부가 됩니다. 바로 한 찰나에 결부가 돼서 한 찰나에 그 병을 없애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불기둥에서 나간 거니까 불로다가 그냥 제거시키는 거죠. 어떤 거든지 막론하고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빈손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겠습니까? 빈손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명이 짧으니 명 좀 길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칠성부처의 빈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칠성부처라는 그 이름이 빈손에 쓰여 있어요. 허허허…. 그래서 그 칠성부처의 빈손이 나와서 한 찰나에 결부가 돼서 그 명을 다소나마라도 이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것뿐이 아니라 지장보살의 빈손도 있고 산신의 빈손도 있고 주해신, 주림신 뭐, 모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그 불기둥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빈손의 그 이름이 탁 나오면서 자기와 결부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자의 그 기둥 안에서 입자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입자가 나올 때는 바로 입자 하나에 칠성부처니 지장이니 뭐, 전부 헤아릴 수가 없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신이 돼서 찰나에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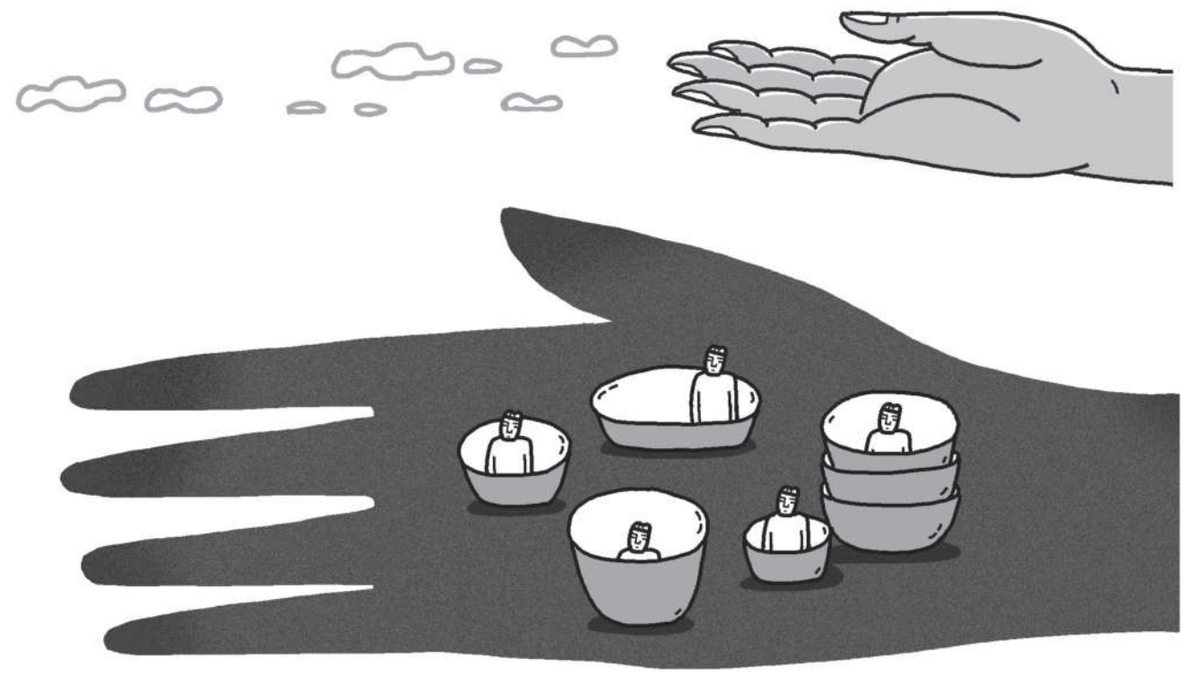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의 한 생각이 아촉이요, 한생각이 아미타요, 한생각이 지장이요, 한생각이 관세음이요, 한생각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나툽니다. 그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물에서 죽게 됐을 때는, 즉 말하자면 해신으로서 생각을 하게 하면 금방 용신이 돼 버립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생각만 하고 작용을 안 한다면 무효죠. 그래서 부처님의 한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한생각을 내시지 않는다면 법신이 없고, 법신이 없다면 바로 보현신이 없어요, 작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근본, 그 뿌리인 근본이 있고,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작용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처님도 계시고 도심도 있고 도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을 찾고 경전을 보기 이전에 내 마음부터 그렇게 단련을 해 가지고 경전을 한번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싱그럽고 광대무변한 것인지를 아실 겁니다. 경이라는 것도 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스리면서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교입니다. 그 경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자기의 마음 다스림에 의해서 결부돼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경만 읽으면 잘되는 줄 알아서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대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차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고, 사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큰 자배기가 있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사람도 종지와 같은 차원의 그릇이라면 간장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차원이 접시라면 그저 나물 무친 거밖에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바다가 되라 이 소립니다. "그 불기둥에 놔라. 놔라." 하는 것은 한바다에 물 몇 그릇 붓는다고 두드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물 몇 그릇 퍼낸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맑은 물, 더러운 물, 구정물, 흙물, 핏물, 고름물 할 거 없이 다 들어가도 다 바닷물일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가라앉혀서 그대로 양식이 돼서 만생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다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넓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마음 하나가 지금도 여러분의 집을 점프해서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밥통에 밥해 놓은 것도 볼 수 있고 자기 가정에 무엇을 해 놨는지 볼 수 있듯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해 놓고 살고 있고 무엇을 어디다 두고 한 것까지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빛보다 더 빨리 가서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 데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 것을 보고자 해서 그것이 찰나에 봐질 때, 한 귀퉁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첨보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공부입니까?

제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질문 저는 공부한다고 놓고 가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무엇이 튀어나올 때, 놓는 게 너무나 귀찮아서요, 어느 날 '아이, 그러면 한꺼번에 몰락 놔 버리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놓느라고 고생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락 놔라." 하는 소리를 계속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 거 같았습니다, 느낌에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없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소리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한 6, 7개월 전에도 놓고 놓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데 '이거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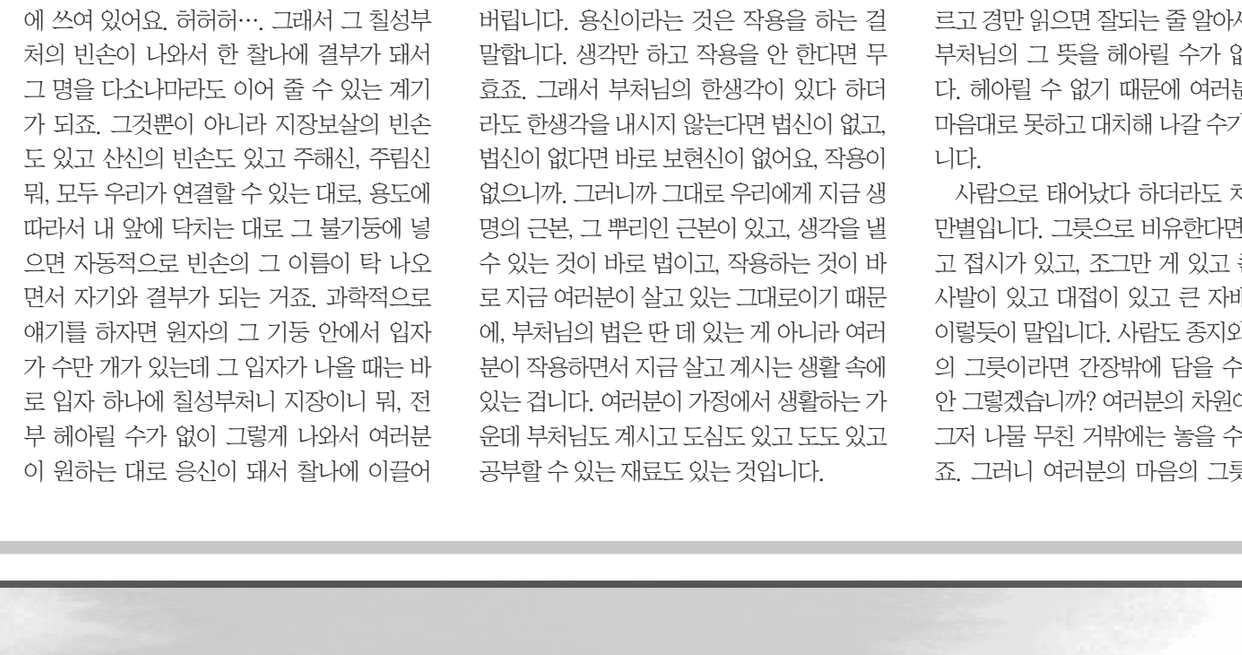
답변 죽어야 본다고 그랬는데 왜 나와요? 하하하…. 아니, 지금 죽으나 요다음에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진데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알면 뭘 합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허허허…. 스스로 마음이 걸림 없는 데로 도달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사를 버린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죽든 말든 그냥 버렸는데…. 본래 진리가 버리고 가는 겁니다. 본래 버려져 있어요. 본래 내가 없고 버려져 있는 겁니다. 주인공의 시자로서 몸뚱이를 움죽거리면서 다닐 뿐이지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때 내가 아님을 알고, 참나가 내가 아닌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나'는 정신계고 '가짜 나'는 물질계란 말입니다. 이 물질계가 보이지 않으면 또 무효예요. 보이지 않아도 무효고, 정신계가 없고 이 물질계만 있어도 또 무효예요. 보이긴 해도 그것은 안 보이는 거나, 못하는 거나, 중생으로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하지 말고요, 그대로 정진력을 길러서 부지런히 뛰세요. 하되 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의욕적으로 무슨 일을 내가 어디까지 해야겠다 한다면 그냥 '주인공,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뛰세요. 내가 의욕이 없으면 '의욕이 있게 하

☞ A18면으로 계속

화계사 미륵존불 낙성·점안법회 봉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화계사에서 이번에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오랜 숙원인 석조 미륵보살입상 조성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며,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점안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대덕스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하시어 축하해 주시고
법석을 빛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주지 수암 합장

일 시 2018년 12월 7일 (금) 오전 10:00
장 소 화계사
식 순 상단불공 10시 | 점안법회 12시
문 의 02)902-2663

대한불교 조계종 三角山華溪寺

깨달은 분이 수가 없이 많다 하더라도 한 불바퀴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는 것도 너 아니야!' 웃으면서 속으로 그럭하고선 의욕 있게 생각하게 만들고, 화가 나면 '화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 아니야!' 그렇게 하고 가고, 몸이 피곤해서 드러누워서 일어나지지가 않걸랑 '일으키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일어나고요. 아,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왜 고달프게 살아요? 내가 쓸모가 없다면 그만 옷을 벗겨 갈 거고 쓸모가 아직 있다 하면 벗기지 않고 좀 더 둘 거고요. 새 옷을 입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 말을 했는데 가늠이 됩니까?

다 함께 마음을 내시는지요

질문 이 지구상에 마음공부 하시는 분이 또 있으리라고 전제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가령 그런다고 할 때, 세계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그분들은 다 함께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마음을 낸다, 안 낸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말했죠?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다고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자가발전소라면, 종합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불바퀴라고 합니다. 법바퀴라고도 하죠. 그럼 또 이런 말을 한 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깨달은 분이 수가 없이 많다 하더라도 한 불바퀴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낱낱의 물방울이 수천 수만이라고 하더라도 물방울이 여기 이 물컵에 다 들어가면 한 그릇입니다. 한 그릇! 진리라는 게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일이 생겨서 퍼뜩 알았다 할 때, 모두 불바퀴에 본래 직결이 돼 있으니까 한 찰나에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마음을 내면 스위치가 올려지는 격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한 찰나에 회의가 벌어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자동적입니다. 회의가 벌어졌다가 그 모든 응신(應身)들이 거기에서부터 다, 가설이 된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전력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거 이해가 갑니까?

짐작이 가라고 하는 건데, 그럼. 허허허…. 발전소에서 발전소로 하달이 돼 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대로 전력을 뽑아 쓰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또 마음을 낸다, 안 낸다 할 것도 없죠. 보고 들었으면 그대로 감지가 돼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가는 사이 없이 오르고 내려서 오른다 내린다 하는 언어도 붙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직결이 돼 있는 것도 모르고, 가설이 돼 있는 것도 모르죠. 위로는 직결이 돼 있고 아래로는 가설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의 그 한자리에, 가설이 돼 있는 자리에 놓으면 될 텐데, 그 가운데 스위치만 올리면 될 거를, 그거를 몰라서 자기한테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나 뭐, 이런 데서 방송이 되면, 할 것은 하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딱 한데 놓고 한생각 하면 컴퓨터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한생각만 넣으면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모든 거를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생산돼 나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다 놔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도 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 벌써 태양계로 은하계로 다 통하게 돼 있고 그것은 뭐…. 그래서 대천세계, 소천세계가 한데 합쳐져서 중천세계입니다, 우리 사는 데가. 이러니 모두가 종합돼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에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같이 마음을 내 주는지 어쩌는지 하는데, 같이 마음을 내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찰나가 됩니까? 그리고 같이 어떻게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마음 내는 거는 사량적입니다. 인간 이전에 '참', '참 진(眞)'이 거기 한데 모여서, 직결되고 가설이 돼서 모두 그렇게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불바퀴에 모든 것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딱 스위치만 올리면 거기에서 응신들이 출발을 해서, 이 사바세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즉 말하자면 그 나쁜 마음 속에 전부 응신이 돼서 들어갑니다. 응신이 돼서 들어갔다가 한 찰나에 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이 다 바뀌집니다. 그러니까 몸, 활동도 바뀌지죠, 마음이 바뀌지니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그 중생들이, 만약에 이런 공부를 각자 하신다면 천백억의 화신(化身)으로 화(化)한단 말입니다. 그 중생들이, 업식이 그냥 화해서 화신이 돼 버려요. 화한다고 그래서 '화신'인 겁니다, 바뀌진다고 해서. 그런데 또 상대방한테 들어가서…, 돼지가 만약에 응해 달라고 하면 돼지 한테로 들어가야죠? 돼지가 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신이라고 합니다. 법신(法身), 응신(應身), 보신(報身)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한 찰나에 들고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스님!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중국에서 "어이구, 이거 피가 멈추질 않아서 오질 못합니다." 그럴 땐 응신이 아니고는 아니 되죠. 가고 옴이 없이 한 찰나에 들어야죠? 한 찰나가 아니라면 그거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건지는 데는, 돼지가 사람을 보면 둘로 보지만 돼지가 돼지를 볼 때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저항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돼지뿐이 아닙니다. 꽃이나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짐승들이나 나는 짐승들이나 또 곤충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하면 의심을 하고 돌아가죠?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재깍 접근이 되죠.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접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신이자 응신입니다. 그와 같이 그 모든 일은 그렇게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직결돼 있는 데는 모든 자가발전소가 한데 합쳐진 자가발전소요, 지금 가설이 된 데는 현재 세상이란 말입니다.

> 경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자기의 마음 다스림에 의해서 결부돼야지
> 아무것도 모르고 경만 읽으면 잘되는 줄 알아서는
> 도저히 부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식을 공식이라 하시는 이유

질문 큰스님의 법문 중에 "수 · 상 · 행 이것이 식이 따로 없이 식이 식으로, 원식으로 들어가요.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데 합쳐서 이렇게 해서 원식이 됩니다. 경전에는 원식이라고 하지만 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공식'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이 공용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 주는 거죠. 중용으로 작용을 해 주는 거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식을 공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희들의 삶과 연결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보통 살아나가는 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살죠. 우리가 공생으로 삽니다. 공생으로 살죠? 우리 몸뚱이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까닭에 공심입니다. 그리고 또 공체입니다. 얼마나 그 생명들의 체가 많습니까. 공체입니다. 그리고 이 움죽거리는 것도 공용입니다. 모두가 분야 분야를 맡아서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야 분야 맡아서 움죽거리는 자체를 공용으로 합니다. 움죽거립니다. 그런데 그 공용으로 움죽거리는 거를 원식에서 이렇게 모든 거를…, 이게 말하자면 공식으로서, 공식이라고도 하고 원식이라고도 합니다 마는 이게 이 모든 거를 이렇게 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이 살아 있는 모습으로서는 이렇게 집어먹는 데도 시간이 가고 그러지만, 하나를 집어먹어도, 전체를 집어먹어도 이거 집어먹는 사이가 없이 집어먹게 되고, 함이 없이 하게 되고, 주는 사이가 없이 주게 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 원식이 공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식으로서 우리가 해 나가는 데는 그 여러 가지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이 한데 모두 어우러져서, 즉 말하자면 원공이죠. 원식이죠. 그게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부.

또 천도재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해 놓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까닭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집에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한다면 아주 제사가 돌아와서 뭐, 일 년에 몇 번이니 몇 번이니 하고 괴롭게 생각 안 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은 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살아가면서 살던 그 습이 있어서 죽어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먹는 거를 생각하고 입는 거를 생각하고 사는 집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로, 인연 있는 집들로 이렇게 돌아치고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대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일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모두를 볼 때…, 우리도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놨죠. 이 한 분에서 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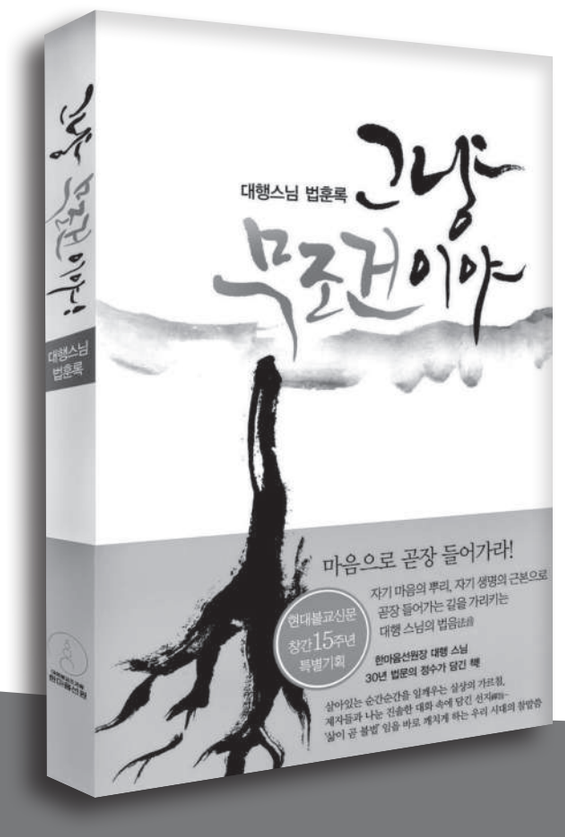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이라는 이름이 없었단 얘기죠. 부처님의 그 제자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고 이렇게 하셨지 보살이라는 이름을 내놓질 않았단 얘기죠. 그 후에 보살이라는 이름을 씌워야 모두 가르치겠다 해서 씌운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마음을, 즉 말하자면 할 일이 많으니까 "이 부서는 이거 지장으로 이름을 지어서 맡아라. 이 부서는 관세음으로 맡아라. 이 부서는 칠성으로 맡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지가지로 맡고 자기의 진짜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연등불이다, 자기 자성불은. 자성불은 연등불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등불이라고 한다면 연등불이 자기한테 뜻을 내린 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나를 석가가 되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한 모두를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한테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 깨친 분들은 다 얼굴만 쳐다보지 않아도, 말만 들어도 벌써 몇천 리, 몇만 리, 몇천 년이 지났어도 알고 있단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뭐, 걸림이 없죠, 모두가. 그러니까 한 분으로, 이 진리는 하나니까 수십만 명이 깨친다 하더라도 한 분입니다. 일 불입니다. 일 불이 천체 허공에 꽉 차려도 차고 일 불이 아주 좁쌀 알갱이만 하게도 될 수 있고 아주 모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너무나 광대해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 계신데도 우리들 몸과 둘이 아니요, 우리들 마음과 둘이 아니요, 우리들의 생명과 둘이 아니요, 우리들과 둘 아니게 항상 이렇게 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항상 너희들의 마음이 지장이 되고, 너희들의 마음이 관세음이 되고, 너희들의 마음이 모든 부서에 이름을 다 가지고 너희들 자유스럽게 쓰는 대로 써라." 지장으로 될 때는 지장으로 되고, 아버지로 될 때는 아버지로 되고, 또는 부인으로 될 때는 부인으로 되고, 남편으로 될 때는 남편으로 되듯이 보살이 지장이다, 관세음이다 이러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쓸 거는 그냥 그럭하면 지장이 자동적으로 돼요. 또 그 부서의 용도에 맞춰서 하면은 그냥 관세음이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런 거를 갖다가 멀리만 생각하고 여럿으로만 생각하니까 도무지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로서의 경전을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그 도리를 알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 선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뚱이와 내 불성이 둘이 아니다. 배와 선장이 둘이 아니듯이 운전수와 차와 둘이 아니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길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그러니 따로따로 보살을 찾고 따로따로 부처를 찾고 그러지 마시고 부처는 자기 내면의 한군데 있으면서…, 우물이 하나 들었다고 그러세요. 내 가슴속에 우물이 하나,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 속에서 그 샘물을 퍼 가지고 그 천차만별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삼학 중 '戒'가 우선인 까닭은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삼학, 불교 수행 덕목으로 언급
팔정도와 연결돼 실천수행 가능
계 · 정 · 혜로 수행하면 깨달음 얻어

한국불교는 계 · 정 · 혜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수행이 이뤄지고 있는가

조계종 기본교육서 계율학 배우지만
현재 한국불교엔 '계' 결여돼 있어
율장에 의한 청정승가가 바로 서길

계(戒) · 정(定) · 혜(慧)의 삼학은 초기 · 부파 · 대승불교 문헌들 및 율장 등에서 하나의 수행의 덕목으로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붓다는 삼학에 대해서 초기불전인 〈대반열반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실로 세존께서는 왕사성 기자굴산에 계셨다. 그곳에서 비구들에게 몇 번이고 다음과 같은 법화만을 설하셨다. '이와 같은 것이 계이다. 이와 같은 것이 정이다. 이와 같은 것이 혜이다. 계를 원만히 수행한 정은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다. 정을 원만히 수행한 혜는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다. 혜를 원만히 수행한 마음은 모든 번뇌로부터, 즉 욕루(欲漏) · 유루(有漏) · 견루(見漏) · 무명루(無明漏)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

삼학의 계 · 정 · 혜를 전후의 순서에 의해 점진적(漸進的)이고 직선적(直線的)으로 수행하게 되면 번뇌를 소멸하게 되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그리고 삼학의 수행덕목은 불교에만 있고 외도(外道)들에게는 없음을 대승 유식학파의 논서인 〈유가론〉에서는 "이 삼학은 성스러운 가르침(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있다. 삼학은 외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에만 있는 삼학을 수행자들은 하나의 바른 수행방법으로서 꾸준히 정진할 것을 〈잡아함경〉 중의 〈학경(學經)〉에서 붓다는 "삼학을 구족하면, 그것은 비구의 정행(正行)이다. 따라서 계 · 정 · 혜의 3가지 법을 꾸준히 닦아야한다"고 권한다.

붓다는 삼학의 계 · 정 · 혜를 설함과 함께 초전법륜에서 설하신 팔정도 수행과 접목하여 '계'는 정어 · 정업 · 정명, '정'은 · 정념 · 정정, 그리고 혜는 정견 · 정사유 · 정정진의 실천수행으로 각각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별 불전들에서는 계 · 정 · 혜의 삼학에 대해서 의의, 순서, 수행과정, 수행결과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불전들의 내용과 같이 작금의 한국불교와 승가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붓다가 설한 계 · 정 · 혜의 삼학 순서에 의해 교학 지도와 수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리고 '계 · 정 · 혜의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다.

붓다가 설한 시간 중에서 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 미래 · 현재, 즉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들어 있다'는 시간에 의하면 앞의 의문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2강좌에 걸쳐 계율학이 강의되고, 그리고 9개의 율원(비구 7, 비구니 2)에서 붓다의 계율정신을 계승하여 율사로서 수행과 청정승가를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와 승가의 현재 시간 중에는 계 · 정 · 혜 삼학 중에서 첫 번째인 '계'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신뢰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발표된 불자 수 761만 명이 간접적으로 나마 답을 대신하고 있다.

2018년 무술년은 불교계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와 같은 다사다난이 자량의 힘이 되어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취임과 함께 계 · 정 · 혜 삼학의 순서에 의한 교학 연찬과 수행, 그리고 율장과 청규에 의한 청정승가와 교단이 여법하게 여일하기를 불교학자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社 說

청년문화공간 건립 나서자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다. 청년들이 모이는 지역에 사찰은 더더욱 없다.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미래세대 정책과 지원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화마당에서 일선포교현장서 활동하는 스님과 재가자, 청년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불교는 청년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기실 불교계는 이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부분 1회성 행사에 그치고, 공동체 구성에는 무관심했다.

이번 대화마당을 통해 드러난 불교계의 미래세대 포교 과제는 '불교공간 건립'이다. 단순히 사찰 어느 한 구석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대다수 모이는 도심지역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에 찾아오기만을 바라지 않고, 눈길만 주고 지나쳐도 좋은 청년들 사이의 공간 말이다.

심리학에 '에펠탑 효과'라는 표현이 있다. '단순노출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말은 요약하면 "자주 보면 정 들고, 정 들면 좋아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물론 과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 불교계는 노출에 취약하다.

청년들이 말한다. 핫 플레이스에 교회 · 성당은 있지만 사찰은 없다고. 이웃 종교에서는 대학로 · 왕십리 등에 문화회관을 짓고,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창작의 기회, 여가의 기회로 이어지며 각광받는다.

불교계는 어떠한가. 일반사찰은 불사가 먼저이고, 종단들이 앞장서 신도시에 짓는 건물도 포교당 성격이 짙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위치다. 청년들은 모일수록 시너지가 크다. 하지만 모일 공간조차 없으면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다.

산사통합관리단 출범 박차를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로 구성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지 159일째를 맞았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와 우리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였다.

하지만 지정된 지 5개월이 넘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산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무엇보다 등재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맡게 될 산사 통합관리단 구성이 지지부진하다.

11월 27일 조계종이 그랜드힐튼호텔서 개최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기념식'에서는 이 필요성이 집중 제기된 자리였다.

각 지자체가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이를 조정할 통합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진정한 의미는 이 유산이 단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유산을 보존, 관리하여 보다 많은 세계인들과 후손들이 그 가치를 알고, 함께 향유하는데 의미가 있다.

통합관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문화재청 등 각 분야 전문기관과 불교계 사찰과 신도회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 산사에서 생활하는 사찰의 스님들과 산사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산사에 대한 통합관리단 출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비지정 문화재 도난 예방 관심을

지난 2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작가 모임 나우회 회원들과 도쿄 일원 박물관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 탐방 기간 중 필자를 당황하게 만든 곳은 도쿄 미나토구에 소재한 네즈 미술관이었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잘 정돈된 정원들 들어서니 누가 봐도 한국에서 건너왔을 석탑, 부도, 석등, 석주, 문인석, 석조 동자상들이 정원 장식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레를 산책하는 데만 20여 분이 걸리는 큼직한 정원에 한국에서 건너온 성보들은 제대로 서 있는 것들이 없었다. 본래 자리에서 해체해서 가져와 복원했으니 조합이 맞지 않았고, 접합부 사이가 들뜬 것들이 다수였다.

11월 27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2000년 10월 도난당한 울산 신흥사 승탑부재(1701년 제작)와 2013년 1월 도난당한 창원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조선시대) 등 석조 불교문화재 2점을 회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들 성보들은 개인 자택 등에 은닉돼 있다가 단속반의 지속적 수사 끝에 회수된 것이다.

찾은 성보 중 창원 상천리 석조여래좌성의 사진을 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일본 네즈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어느 부잣집 정원의 조형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상천리 어느 사지에 있던 이 불상은 원래 불두가 없었다. 이를 은닉했던 소유주는 자신의 임의대로 불두를 만들어 훼손시켰다. 그래서 불두와 아래 여래상은 색도 다르고 조화롭지 못한 느낌이 강하다. 복원 불두와 기존 여래상의 암질이 같은 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회수된 불상에 대해 "옷자락을 잡은 수인의 형태 등에서 조선 시대 지방에서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여래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래상이 도난을 당한 시기는 2013년이다. 1960~80년대 문화재 도난에 대한 의식이 미비하던 시기에 도난된 것이 아니라 문화재도난백서가 발간되고 도난DB가 활용되는 시대다.

그럼에도 폐사지에 덩그러이 놓여있던 여래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은 현재 정부가 폐사지 등에 소재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보여준다.

지난 국감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는 1만2977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 · 도지정 231점, 비지정 1만2737점 등으로 국가지정 및 시 · 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 감독이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지정 도난문화재는 2015년 509점, 2016년 729점, 2017년 1274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조사를 강화해 급증하는 도난을 예방한다.

또한 다수의 문화재 장물 유통은, 선의취득 조항을 일부 거래자가 악용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큼 선의취득 배제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불교 성보가 추악한 탐미주의에 빠진 자본가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막아야지 않겠는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 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卍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소년부처’ 키워낸 교정교화 어벤져스



안양계는 안양시 소재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에서 불교반을 운영하는 봉사모임이다.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이자 안양소년원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진은 11월 10일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에 교정교화 관련 교육 연수를 위해 모인 스님과 재가자들이 함께 찍은 것이다.

道伴의 향기 안양소년원 봉사단체 안양계

여성청소년 교정교화 앞장

정심학교 불교반 하던 스님들

의기투합해 봉사단체 조직해

매주 번갈아가며 법회 주관

음악 · 미술 · 명상 접목 ‘눈길’

조계종 승가결사체 등록

종단 재정적 지원 받기 위해

‘안양계’ 이름 짓고 활동 펼쳐

사찰봉사자들도 함께 힘 보태

“그래도 여전히 인력은 부족”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소년(少年)은 많은 것들의 미래다. 좁게는 한 가정, 넓게는 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하지만 미래를 보려하지 않는 소년들이 있다. 당장 처한 현실이 괴로워 미래를 내다볼 여력이 없는 이들이다. 아픈 소년, 마음이 많이 아픈 소년이다. 마음 아픈 소년들은 결국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자신의 잘못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픈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니 잘못을 반복하기도 한다.

모든 것은 연기(緣起)랬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마음 아픈 소년이 저지른 잘못의 원인은 아픈 마음에 있고, 아픈 마음은 그 이전 무엇인가가 원인이다. 부처님은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을 비추어 모든 것이 공함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지만 소년에겐 그만한 역량이 없다. 그래서 스님들이 나섰다. 스님들은 소년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으며 왜 아픈지, 그리고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한다. 청소년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들의 모임 ‘안양계(安養界)’ 다. 지난 11월 10일, 청소년 교정교화 관련 교육 연수를 위해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에 모인 안양계를 만났다.

따로 또 같이

안양계의 주 활동무대는 안양시 소재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다. 정심학교는 소년법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여성청소년이 입소하는 시설이다. 안양계라는 단체 명칭은 ‘아미타불이 살고 있다는 정토’ 라는 불교용어면서도 안양시의 안양(安養)과 같은 한자다. 열반의 다른 표현인 안온, 극락정토를 의미하는 안락국 등의 뜻도 담았다.

대표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재마 스님이 맡고 있으며 회원으로 무관 스님(경찰병원 지도법사), 지선 스님(사회복지사), 성윤 스님(속리산 탈골암), 청하 스님(중앙승가대 학인)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선문 스님(前조계종 총무원 사업국장)은 지난 봄 NGO 로터스월드의 캄보디아 씨엠립아동센터 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출국해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안양계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진행되는 종교활동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법회를 연다. 1주차에 지선 스님, 2주차에 무관 스님, 3주차에 청하 · 성윤 스님, 4주차에 재마 스님이 번갈아가며 법회를 주관하고, 사찰 봉사자들도 힘을 보탠다. 주차별로 개별 활동을 하면서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다같이 모이는데, 마치 마블 코믹스의 ‘어벤져스’ 를 연상케 한다.

안양계의 정심학교 법회는 일반사찰 법회처럼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독송, 사홍서원을 하지만 미술 · 음악 · 명상 등 여러 분야를 접목해 아이들과 교감한다. 여기에는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이 지원한 만화책과 조계종 포교원 만다라북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로 등록되면서 700만원 상당의 지원금 대상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양계 스님들이 교정교화를 위해 의기투합한 건 2014년경. 하지만 정심학교 봉사에 나선 배경은 제각기 다르다. 대표인 재마 스님은 2011년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소개로 정심학교를 알게 됐다. 재마 스님은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었다. 당시 정심학교에는 대한불교진흥원의 대원불교문화대학 재가자들과 수원 봉녕사 학인스님들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지도법사가 없었고, 봉녕사 출가자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정심학교 교화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재마 스님은 이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정심학교 아이들이 그냥 예뻤어요. 보통 소년원이라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데 아이들은 참 순수했거든요. 호기심 많고 잘 웃고,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표현력이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상대방 입장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고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성격에 따른 장단점이 확 느껴졌죠.”

재마 스님은 정심학교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이처럼 회상했다. 그 시절 불교반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찾아왔다. 전체 학생이 150명 수준일 때였다. 아이들은 짧게는 반 년, 길게는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정심학교에서 보냈다. 그런데 유독 입소기간을 다 채우고 나간 아이들이 다시 입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대상이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면 실제로 점점 더 나쁜 행태를 보인다는 ‘낙인효과’ 였을까? 안양계 스님들에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던 소년들은 바깥보다 차라리 정심학교에서 지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 몇몇 학생들은 잔여 입소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켜 연장하곤 했다. 안양계 스님들은 이런 현상이 마음 아팠다.

“정심학교에 더 오래 머무르려 하거나 다시 입소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적 문제로 인해 돌아갈 곳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으니까요. 한 친구는 4번이나 정심학교에 입소하기도 했죠. 안양계는 아이들이 다시 이곳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심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재마 스님과 비슷한 시기에 “스님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심학교 봉사를 시작한 무관 스님은 돌아갈 곳 없는 아이들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러 입소한 아이들이지만 한편으론 피해자이기도 한 셈이라는 뜻으로 읽혔다. 연기(緣起)였다. 사회는 대개 잘못한 사람에게 쉽게 손가락질 하지만, 정작 잘못 이전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는 무관심하다. 이같은 세태를 향한 경종이기도 하다.

온 몸으로 느낀 성장과정

안양계 스님들은 수년간의 교정교화 활동을 통해 정심학교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 사춘기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불교를 체득한다. 감동의 순간이다.

한번은 법회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해 배운 뒤 다같이 익명 글쓰기를 했다. 주제는 ‘자신이 겪은 고통’ 이었다. 우울증을 앓던 한 아이는 자신의 글을 통해 삶이 얼마나 괴롭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지 적었다. 돌아가며 글을 읽어본 뒤 스님들이 말했다.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이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서원을 세우셨어. 불자들이 고통스러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모두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단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원대 선종의 특징

B5
문화
대고려 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B6
학술 · 문화재
각묵 스님 〈위방가〉 한국 최초 완역



지난 11월 25일 봉행된 정심학교 불교반 수계법회. 이날 아이들은 오계를 수지하고, 참회진언을 외며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안양계 제공



정심학교 불교반에서 활용할 '명상 선 기공 13식'을 배우는 안양계.



◀ 정심학교 아이들이 스님들과 함께 만든 만다라 작품들. 안양계 제공

교정전법 지원 절실… "불교 쉼터 필요"

이웃종교보다 부족한 인프라

도움 필요한 청소년 많지만

불교계 청소년쉼터는 전무해

타 종교, 시설 등 여건 갖춰

"청소년 위한 불교거점 절실"

그래도 꺼지지 않는 원력

교정교화에 대중 관심 적지만

아이들 심성 변화 감동 받아

승려생활 병행하기 어려워도

더 큰 단체 발원하며 자비행

'안양계' B1면에서 계속

그러자 자신의 고통을 적은 아이들이 다른 친구가 겪는 어려움을 듣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기감정을 우선시하던 아이들이 남의 감정에 공감한 것이다. 법회가 끝나고 한 아이가 스님에게 속삭였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항상 고통스럽고 도움을 받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단 걸 깨달았어요. 이곳(소년원)에서도 가치 있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심학교 아이들은 불교를 만나면서 훌쩍 자라고 있었다. 이런 아이들은 지난 25일 정심학교 불교반 수계법회를 통해 새롭게 불교와의 연을 다졌다. 수계식에 참여한 11명의 아이들은 오계(五戒)를 수지하고, 참된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스님들은 마정수기로 계를 내렸으며, 아이들은 참회진언을 외며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아이들이 수계하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취침시간에 제대로 잠을 못 자던 친구는 기도를 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을 속으로 외면서 숙면이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사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첫 인상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항상 아이들이 용기를 갖고 사회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선문 스님 제안으로 올 초 안양계에 합류한 청하 스님은 최근 수계법회에서 아이들에게 감동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외부인과의 대화가 제한적인 정심학교 규정과 관련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 서로 속내까지 드러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외부인에게 물건을 받거나 학교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 아이들과의 교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얼마 전 한 아이는 청하 스님에게 "휴지가 부족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단다. 정심학교에서 매주 아이들에게 일정량을 지급하지만 부족했던 것이다. 이 아이는 스님에게 "엄마가 제대로 돈을 주지 못한다"고 호소했지만 스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다. 청하 스님은 "그 아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기까지 많이 고민했을 텐데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회고했다.

교화 한계 분명한 불교계

안양계의 꾸준한 활동으로 정심학교 내 불교에 대한 분위기는 좋았다. 최근 수계식에서도 담당 교사들이 아이들보다 먼저 마정수기를 받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불교의 주 수행법인 절이나 명상이 체벌의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어느 날 법회 프로그램으로 염주만들기와 108배를 하려는데 아이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재마 스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말썽을 일으켜서 개별실에 다녀왔다는 아이가 그러더군요. 학교에서 벌로 500배를 시켰다고. 그 얘기를 듣고 학교에 따졌습니다. 종교수행을 왜 체벌로 사용하느냐고요. 그래서 시정은 됐는데 요즘은 명상을 시킨다고 하네요. 법회시간에 명상하려고 하면 역시나 반응이 좋지 않아요. 좋은 수단을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니 불교반에는 손실이죠."

안양계 스님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거점이 전무한 것이다. 정심학교 입소기간을 채우고 나간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불교시설이 없다는 뜻이다. 스님들은 아이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이따금씩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몇몇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임신한 경우 등 스스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었다. 스님들은 지방쉼터 등을 알아봐주지만 쉽사리 연결되지 않았다.

"이웃종교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비롯해 인프라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정심학교에서 나온 아이들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고, 유관 단체들끼리 결연사업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변변한 사무실조차 없죠.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무관 스님 표정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스님들은 의왕시 소재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불교반을 담당하는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가 안양계의 목표와 같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단체로서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단일창구로 학교 측과 대화하기 때문에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성개발원 측은 매년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기 어려운 안양계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목표다.

이런 스님들이 불교계에 바라는 건 없을까? 재마 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문을 열었다.

"교정교화 활동을 하면서 승려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동부구치소에도 봉사활동을 가는데 사실상 지원이 없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공양물을 다 챙겨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해결되지 않으면 활동하기 어려워 한계가 분명해요. 이웃종교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로라도 늘 같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봉사하러 옵니다. 스님들이 처한 상황보다는 조금이나마 나은 거겠죠. 한편으론 부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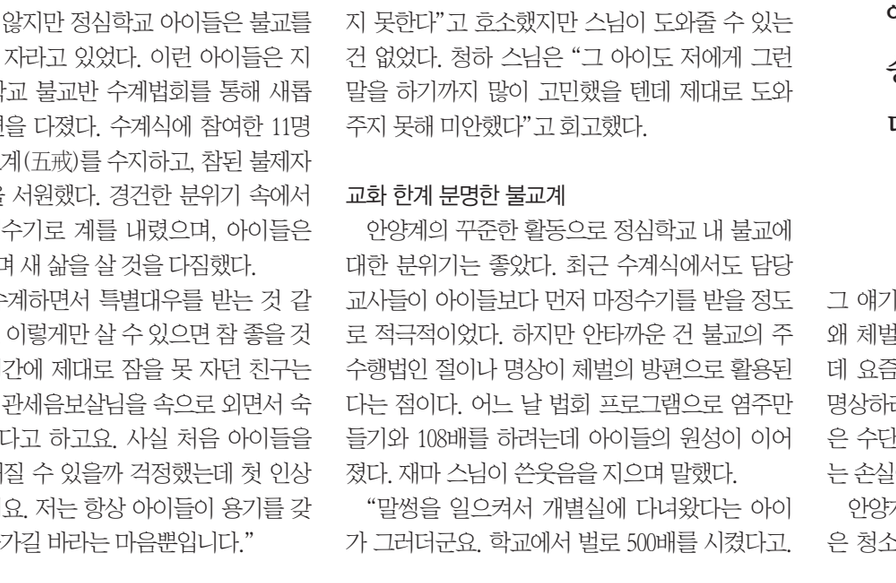
안양계 스님들은 고정적인 봉사인원과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재마 스님은 "다행히 지난 여름수련회 간식비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통해 지원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지역사찰이 도와준다면 교정교화 활동이 보다 활성화된다. 불교계의 관심이 소년원이나 구치소에도 닿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양계는 현재 마음 아픈 소년들에게 더 나은 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발걸음을 내딛는 단계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계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안양계가 품은 교정교화 원력은 서방정토만큼이나 크고 아름답다.

정호승 시인이 자신의 시 '소년 부처'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경주박물관 앞마당 머리 없는 돌부처에 아이들이 자기 머리 얹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일생에 한 번씩은 부처가 되어보라고 부처님들 일찍이 자기 목을 잘랐구나' 라고. 안양계는 머리 없는 돌부처 대신 마음을 비운 부처님이다. 아픈 너의 마음 나의 빈자리에 담으라고.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라마교 상승…선종의 부침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㉒ 원대 선종의 특징



그림 · 강병호

원나라는 중국내 소수 민족인 몽고족이 세운 나라다. 원나라의 통치자들은 대부분이 티베트 불교 즉 라마교를 신봉했다. 때문에 많은 종교 가운데 라마교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중국 불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하지만 중국불교는 인구비례로 볼 때 여전히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 원나라 초에 북방에서 중국불교인 선종(조동종)과 도교가 격렬한 논쟁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논쟁은 한족불교도들과 도교의 신자들 간에 '노자화호(老子化胡)'를 중심에 놓고 발생한 논쟁이다. 선종 측에서는 조동종 소림사의 설정복유(雪庭福裕 · 1203~1275) 장로와 도교의 이지상(李志常)이 원나라 헌종(憲宗)의 면전에서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의 결론은 선종이 승리를 거두면서 불교가 기타 종교보다 우위를 점유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방불교계 내부에서 선과 교가 충돌했는데, 교는 천태, 화엄, 법상 등 삼종이고, 선은 선종으로, 논쟁의 초점은 선과 교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지위가 높은가를 결정하는 논쟁이었다. 선, 교, 율 삼가(三家)가 역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1215~1294, 원 세조 제5대 칸)면전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였다. 결과는 교가 선종을 이겼다(使教冠于禪之上). 때문에 선종은 교(教) 다음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 선종이 비록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선종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강남지역에서 선종은 여전히 유행했다. 다만 교종(教宗)의 지위가 높아졌을 뿐이다.

당시 북방의 한족불교는 연경(지금의 북경)을 중심으로, 많은 선승들이 운집해 있었고, 자연스럽게 선종 위주가 되었으며, 연경에서는 여전히 임제종과 조동종이 유행했다. 먼저 임제종의 상황을 살펴보면, 임제종의 해운인간(海云印簡 · 1202~1257)은 일찍이 원나라 태조(太祖), 태종(太宗), 정종(定宗), 헌종(憲宗) 등 황제들에게 예를 받았으며 신칙으로 승통(僧統)이 되기도 했다. 또 해운인간은 명을 받들어 주지를 살 때 승가고시를 치르게 되었는데, 원대 헌종(쿠빌라이)은 그로부터 보살심계(菩薩心戒)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북방의 임제종은 조정의 관계 및 보호 하에서 큰 불편함이 없이 발전하였고 동시에 쇠퇴하지도 않았다. 조동종도 역시 금원(金元)시기에는 만송행수(萬松行秀 · 1166~1246)의 계파가 대표가 되는데, 그의 제자 임총종륜(林泉從倫 · 1223~1281)은 원대 세조를 위해서 선(禪)을 강의하고, 공안 및 해답을 침착하고 여유롭게 해서 세조로부터 호감을 얻었다. 그 후 그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의 변론에 참가하였고, 도교의 경전을 분소(焚燒 · 태우다)하는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의 스승인 만송행수와 조동종의 송고(頌古)에 대해서 논평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원대 북방 선종에서 조동종의 발전에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원대의 남방 선종은 단연코 임제종의 세력이 가장 강했으며, 대체로 대혜종고 계통의 간화선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남방 선종은 대부분 임제종에 속하였다. 즉 대해종고와 호구소륭(虎丘紹隆)등 양대 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남방의 임제종은 네 종류의 지파가 존재했다. 대혜종고 문하에 속하는 영은지선(靈隱之善 · 1152~1235)과 북간거간(北磵居簡) 등 두 지파와 호구소륭(虎丘紹隆)문하에 속하는 송원숭악(松源崇嶽)과 파암조선(破庵祖先) 등 두 종류의 지파가 존재했다. 영은지선의 제자 원수행단(元叟行端 · 1255~1341)은 경산(徑山)을 거점으로 선법을 전파하였는데, 〈행단탑명(行端塔銘)〉에 보면 "그 법을 이은 제자가 오, 초, 민, 오, 촉, 한 등지에서 동시에 선법을 전파하는 이들이 약 천인(千人)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영은지선 계통의 선법으로 주로 남방의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졌던 것 같다. 이 파는 당시 네 종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우세했던 파이기도 하다. 북간거간 계통의 선사들은 비교적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소은대소(笑隱大訴 · 1284~1344)는 북간거간의 손상좌로서, 소은대소는 총림청규와 선중교육을 중시했으며, 역시 원대의 선사인 덕휘(德輝)가 수정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清規)〉에서 소은대소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특히 덕휘(德輝)선사가 편집한 〈칙수백장청규〉는 백장회해의 〈선문청규〉 이래로 총림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고, 선종역사에서 〈칙수백장청규〉는 선종의 규칙과 제도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사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이외도 각안(覺岸)은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 4권을 지었으며, 상은(常念)은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22권을 지었으며, 〈불조역대통재〉의 대부분 내용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남송 때 조수(祖琇)가 편찬한 〈융흥불교편년론(隆興佛教編年論)〉 및 남송, 금(金), 원(元)대의 불교사를 보충한 것이다. 이렇듯 거간파(居簡派)에서는 걸출한 선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선 · 교 · 율 중 教 우선
북방은 조동중 남방은 임제종

호구소륭(虎丘紹隆)의 두 지파 가운데 하나인 송원숭악(松源崇嶽)의 계파인 숭악파(崇嶽派)의 중요한 인물은 고림청무(古林淸茂 · 1262~1329)와 담방수충(曇芳守忠 · 1275~1348)등이 있다. 이들의 중요한 활동 무대는 강소(江蘇)일대로서, 모두 금릉을 중심으로 활약했다. 파암조선(破庵祖先)의 계파인 조선파(祖先派)는 원대의 남방 선종 중 남방의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계파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고봉원묘(高峰原妙 · 1219~1293), 무견선도(無見先睹 · 1265~1334)는 중봉명본(中峰明本)과 함께 남방에서 영향이 가장 컸던 선사이다. 고려 때 태고보우선사가 선법을 수학하고 법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석옥청공(石屋淸珙 · 1272~1352)은 일찍이 고봉원묘(高峰原妙)에게서 3년 동안 수행했던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조선파(祖先派)에서도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도 했으며 민간에 영향도 컸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봉원묘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해서, 많은 이들이 그로부터 계를 받았다고 한다. 또 그의 가풍은 자비가풍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칭 그를 '강남고불(江南古佛)'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외도 이 지파의 또 다른 선사인 중본명본은 당시 강남불교에서 원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공안을 문자로 전석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고증식의 참선방법을 비평하기도 했으며, 간화선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도 했다. 동시에 오대, 송대 이래로 활발발했던 선의 정신을 재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영록대부(榮祿大夫)인 조맹부(趙孟頫)는 자칭 그의 제자라고 하기도 했다. 이외도 조정관료 및 지방의 절도사 등이 모두 그를 가까이 하면서 참선을 배웠다고 전해진다.

원대불교는 송대불교의 특징인 선교 융합사상인 선교합류(禪教合流), 유불도 삼교합일 선정합일(禪淨合一) 등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대부분 선사들의 선법사상에 공통된 기조가 되기도 했다. 설암조흠(雪岩祖欽 · ?~1287)은 유석일치(儒釋一致)를 발의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성인의 도와 여래의 도를 관해보니, (모두)동일한 도이며, 일찍이 둘이 아니다.(窃觀聖人之道與如來之道, 同一道也, 未嘗二也)"고 하였다. 중본명본은 유석조합(儒釋調合)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일치, 선정융합(禪淨融合)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황을 사계절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즉 "밀종은 봄이고, 천태, 현수, 자은종 등은 여름이고, 남산율종은 가을이며, 소림이 단전(單傳 · 한 스승의 학설만 전하다)한 종은 겨울이다"고 하면서 "사종은 함께 일불의 뜻을 전했다.(夫四宗共傳一佛之旨)"고 하기도 했다. 초석범기(楚石梵琦 · 1296~1370)는 교선일여(教禪一如)를 말하면서, "교는 부처님의 입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고 했다. 이와 같이 원대의 많은 고승들은 선교융합을 주장하였는데, 사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은 모두 오대송초 영명연수가 일찍이 〈종경록〉에서 주장했던 선교일치, 선정일치, 삼교합일에 대한 주장을 계승 발전한 것이다.

원대불교는 중국불교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선종이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한 시기이다. 선종은 송대를 거치면서 세속화가 심화되었고, 원대에 이르러서 이미 당나라 때 성행했던 선종의 황금시대는 이미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물론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부침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작은 범위 안에서의 부침이었을 뿐이었다. 이미 지나간 세월 속에서 휘황찬란했던 선종의 위력은 다시 재생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원대의 선승들은 나름대로 역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고 위세가 드높았던 선종의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청규를 재정비해 보고, 선(禪)과 교(教)의 논쟁도 해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선사들은 기봉봉갈(機鋒棒喝 · 꾸짖거나 때리고 소리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함부로 선경을 모방해 도리어 좌선수행을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돌출해 내면서, 결국에는 교종의 지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어떤 선사들은 이러한 선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조하고자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한편, 동시에 유불도 삼교융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과거의 찬란했던 영광을 되돌리려는 의도를 품기도 했다.

이외에도 원대는 백성들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쉽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한족(중국인)의 지위도 그리 높지 않았다. 게다가 원대는 라마교를 신봉하면서, 라마승들은 국사라는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고, 중국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선사들은 조정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황실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남방의 선사들은 대체로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을 했으며, 심지어 어떤 선사들은 의식적으로 조정과 거리를 두기도 했고, 조정의 부름을 거절하기도 했다. 결국 원대의 통치자들도 영구집권을 꿈꾸면서 종교 및 백성들을 등급으로 통치를 하려 했지만, 결국 시대적 현실 상황을 통찰하지 못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역할을 마치게 되었다. 종교도 또한 역사로 비추어 볼 때, 시대적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고,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면 결국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단역만을 맡게 될 것이다.

〈동국대 강사〉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 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九龍 의 소원...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크기 : 4,200(가로) × 1,000(세로) × 1,300(높이)mm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이번주 신간은… 〈고마운 아침〉 홍사성 지음/책만드는 집 펴냄/1만원

시집 제목처럼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의 눈이 더없이 따뜻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명징하다. 흔히들 쉽게 읽히는 시, 군더더기 해설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가 명편이라고 말한다.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좋은 예라 할 만하다. 그의 시는 절집에서 듣는 고요 같기도 하고, 얼음장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른 봄날 햇살이 싹을 틔우는 간절함 같기도 하다. 짧은 시의 행간에 잘 갈무리한 보법이며 생각이 보석처럼 영롱하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3 ~ 11/29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청정도론 (비쑷디막가)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오늘, 담마빠다 한구절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 일력	불광편집부	불광출판사	7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3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밝은 사람들 총서 13)	김성구 외 4인	운주사	8	자비와 공 (아날라요 스님의 초기불교 명상 수업)	아날라요	민족사
4	위방가 (법의 분석)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부처님이 깨친 연기 이야기	김성규	통섭출판사
5	화엄경청량소	청량징관/반산스님	담앤북스	10	주장자	인오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5세기 譯經과 空사상 전파한 고승 구마라집 일대기 조명



구마라집 평전

공빈 지음/부키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경 번역의 새 역사를 쓴 위대한 역경가, 동아시아에 대승 중관학의 공 사상을 전파한 사상가,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재현했다고 일컬어지던 천재적 고승. 이 책은 4세기 중앙아시아 구자에서 태어나 5세기 중국 장안서 3백여 권의 불경을 한역하고 3천여 명의 제자를 키우며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구마라집의 일대기다.

오늘날에도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아미타경〉 등 구마라집 역본 불경은 널리 읽힌다. 이해하기 쉽고 아름다우며 한문 투에 어울리는 운율이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이 처음 번역한 대승 중관학의 논서 〈중론〉 〈백론〉 〈십이문론〉은 난해하지만 중요한 저작으로 지금도 손꼽힌다. 그는 대중적이고 간결하며 아름다운 번역어를 만들어 불학의 개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단 여덟 글자로 공(空)의 핵심을 표현했다. 하지만 승려이되 승려가 아닌 자, 중국 불교사서 유일무이한 이교도, 불세출의 불학 대사이나 계행을 어긴 수행자로 보기도 한다. 동아시아 불경사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고승에 대한 평가치고는 모순되고 복합적이다. 구마라집은 파계승인가, 깨달음을 얻은 인물인가.

이 평전은 정대(正大)하고 숭고(崇高)한 고승 일대기를, 〈진서〉 〈위서〉 〈자치통감〉 등 역사적 전거를 씨줄로, 〈고승전〉 〈출삼장기집〉 대소승경전 등 불교 전적을 날줄로, 그 사이를 문학적 상상력과 불학 사상으로 수놓으며 완성했다.

불경 전래사이자 실크로드 둘러싼 문화사

이 책은 4세기 중반(344년)서 5세기 초반(413년)을 살던 구마라집의 일대기다. 당시는 중국사에서 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시대라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 절실한 때였고, 불교사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초기 불교 이해가 한계에 다다른 때이기도 했다.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구마라집은 역경가이자 사상가로, 또 큰 수행자로 활동했다. 그는 한역 불경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위대한 역경가로 기록된다. 구마라집은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대승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 〈묘법연화경〉 〈유마힐경〉 등을 한역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바로 그 문장, 그 뜻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동시에 구마라집은 동아시아에 〈중론〉 〈백론〉 〈십이문론〉 등 중관학의 공관(空觀)을 전파한 사상가였다. 또 중국에 선종이 태동하기 전 선경(禪經)을 번역해 초기 선법을 전한 시대를 앞선 수행자였다.

그의 삶은 불교 전래의 역사와 함께한다. 공간적으로 그의 삶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이어졌다. 일곱 살에 사미승이 되어 십 대에 타림 분지와 파미르고원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불학을 배우고 명성을 떨쳤다. 사십 대에는 구자국을 떠나 중국 동쪽 변경 고장서 17년간 긴 유폐 생활을 보낸 다음 후진의 수도 장안에서 역경(譯經)과 강설(講說)로 홍법의 뜻을 이루었다. 그 과정을 시간적으로 보면 구마라집의 행적은 불학이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환하고, 대승 공 사상이 동방으로 퍼져나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마라집 평전〉은 한 인물의 삶의 기록이자 불경 전래의 역사이며 실크로드의 시대 풍경을 담은 사회 문화사로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책은 〈진서〉 〈한서〉 등의 역사서, 〈고승전〉 〈출삼장기집〉등 많은 승려들의 전기와 여러 기록물을 기초 중앙아시아의 찬란한 불교문화, 파미르고원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험난한 자연환경, 전란이 끊이지 않던 오호십육국의 상황, 장안 역장(譯場)의 생생한 모습, 강남 여산의 혜원과 보기 드문 불학 교류, 구마라집과 함께한 걸출한 제자들의 면면까지 4, 5세기 서역과 중원의 문화, 사회, 승단의 모습을 되살려 낸다.



구마라집 현장법사가 설교한 장소인 수바시고성의 모습.

치욕의 삶 딛고 대승 공 사상 전한 사상가
한역 불경의 새 역사 쓴 역경승 구마라집
3백여 불경 한역 및 3천여 제자들 양성
파란만장한 삶 살던 구마라집의 일대기

구마라집은 복잡한 특성과 매력지녀

"성품이 소탈하고 활달하여 자질구레한 일에 구애받지 않았다."

〈고승전〉에 나오는 어린 시절 구마라집에 대한 성격 묘사다. 그다음에 이어진다. "그의 모든 행동이 수행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그러나 구마라집은 스스로 이해하는 바가 있어 남의 의심에 마음 쓰지 않았다."

구마라집은 복잡한 특성과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믿기 힘들 정도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고, 수행자로서 겪기 어려운 치욕과 모욕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 꺾여 뜻을 접지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숨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 비구의 계율을 어겼다고 주변의 수군거림을 받을 때도, 세속의 권력자에 의해 파계할 때도, 무도한 전진의 장수 여광에게 조롱당할 때도, 음계를 어긴 스승에게 반감을 가지며 제자로부터 대우 받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그를 "천재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십상이고 소소한 규율을 닦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과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학술 연구와 예술 창조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 구마라집이 말한 대로 한평생 홀로 엄격하게 계율을 지킨 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불법을 크게 흥하게 했는가? 불교가 계율을 만든 근본 목적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갈고 닦아 아라한과를 얻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천재적 사상가이자 수행자의 면모 갖춰

"파계하지 않으면 우바굴다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한때 구마라집은 지혜 제일인 사리불(부처의 십대제자)의 현신, 용수보살(제2의 붓다로 일컬어짐)의 재림, 우바굴다(인도의 제4대 조사로 아소카왕의 왕사)에 못지않으리라는 평을 얻었던 천재적 사상가이자 수행자였다. 하지만 그를 얻기 위해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에 의해 두 번의 파계를 했다. 포로가 되어 장안으로 가던 중 전진의 왕 부견의 죽음으로 황량한 땅 고장에서 십칠 년을 머물며 여광의 군사(軍師)나 하며 중국어를 익히고 중국 전적과 불경을 읽었다. 육십 대가 거의 다 되어서야 장안에 와서 후진의 군주 요흥의 지원 속에 불경을 번역하고 강설하며 홍법의 뜻을 이루었다. 그 과정은 그 자체로 개인의 역사를 넘어 시대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구마라집이 겪은 계율을 어긴 수행자의 번뇌와 업장이 깊고 무거움에 대한 고통은 컸고, 그 고통을 대승 공관으로 속박에서 벗어나며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대처하는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이 기록과 상상을 넘나들며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인도 중부에서 발생한 불교는 서북쪽 계빈, 간다라, 대월지 등을 거치고 파미르고원을 넘어 타림분지 주변 서역을 지나 중국에 전해졌다. 구마라집의 삶도 구자국을 기점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 중앙아시아에서 동쪽 중국 고장, 장안으로 이어졌다. 구마라집의 일생을 따라가는 여정에는 불법뿐 아니라 험준한 자연환경, 찬란했던 불교 사회의 모습, 서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함께한다.

실크로드 천산남로의 구자는 서역의 핵심 국가이자 물산이 풍부하고 불교가 흥성한 나라였다. 수도 연성에서 북쪽으로 사십여 리를 가면 "고차하의 서쪽 연안은 기복을 이룬 언덕이었고, 작리대사는 그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각 층의 건축과 금박이 칠해진 불당과 불탑 등은 언덕 위에 난데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기세는 장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 갈색의 언덕은 마치 황금색을 주조로 하는 거대한 주단(綢緞)으로 변해서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까지 대지를 덮는 듯했다"는 작리대사가 눈앞에 나타난다.

아홉 살 구마라집의 계빈 유학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구법승과 상인들이 다녔을 파미르고원과 인더스강을 만난다. "우전하의 양안은 사람 사는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사방은 온통 모래와 자갈뿐이었다. 가는 내내 마차 바퀴가 모래와 자갈에 끼이고 걸렸다. 냉기를 품은 매서운 칼바람은 뿌연 먼지를 몰고 왔다. 며칠 동안 큰 바람이 불었다. 모래와 자갈이 섞여 바람에 날렸고 말은 비명을 지르며 울어댔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돌산에 있는 힘을 다해 겨우겨우 기어올랐다. 꼬박 반나절을 보내고 나서 마침내 비좁은 협곡 입구에 이르렀다. 입구 맞은편과 좌우 양쪽의 산봉우리 모습은 커다란 짐승의 새하얀 어금니 같았다. (…) 말이 풀을 뜯지 않고 머리를 들어 귀를 세운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 바위에서 내려온 말몰이꾼 두 명이 바람을 맞아가며 밧줄을 단단하게 부여잡고 간신히 말들을 끌었다. 그들은 한데 모여 서로를 꽉 잡았다. 눈 깜짝할 사이 눈발이 거세게 몰아쳤다." "벼랑에서 내려다 본 협곡의 물살 빠르기는 화살이 날아가는 듯했다. (…)그 강은 거의 상상에나 나올 법한 고난과 위험을 의미했고, (…) 정으로 쪼아 벼랑에 만든 통로에서 위아래로 칠팔백 개의 계단이 있었다. 한 시간쯤 후 일행은 마침내 높은 벼랑에서 신두하 강가로 내려왔다. 강 위로 가로놓인 긴 밧줄은 사발보다 굵었다. 굵은 밧줄에 매달려 있는 커다란 광주리는 십여 명 정도를 실을 수 있었다. 거센 바람이 계곡을 휩쓸었고 밧줄이 이리저리 계속 출렁였다."

구마라집 역장은 홍법이자 학술 공간

구마라집의 역장은 번역과 강경이 이루어지는 홍법의 장이자 학술 활동의 공간이었다. "구마라집은 호본을 들고 중국어로 읽어 내려갔다. 경전의 원문을 번역하는 한편으로 뜻풀이도 했다. 사실 역장의 의학 사문이 모두 번역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국왕 요흥은 직접 〈대품반야경〉의 옛 번역본과 새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어느 곳이 나아졌고 어느 곳이 부족한지를 살폈다. 혜공, 승략, 승천, 보도, 혜정, 법흠, 도류, 승예, 도회, 도표, 도항, 도종 등 오백여 명이 반복해서 불전의 바른 의미를 토론하고, 번역문의 뜻을 심의한 후에야 정본(定本)을 써서 완성했다. 이처럼 폭넓은 참여와 엄숙하고 진지하고 조금의 빈틈도 없이 진행되는 토론 속에서 번역 작업은 진정한 학술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승려와 속인이 모두 경건하게 한 구절마다 세 번씩 반복하면서 그 뜻을 새기고 정밀하게 추구하면서 성인의 뜻을 보존하는 데 힘썼다."

구마라집 번역의 새로움은 역장의 규모, 걸출한 제자들, 어학 수준의 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구마라집이 범어와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깊이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해설!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금강경』 수록!
현직 고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핵심을 간결하게 해설, 정리하였다.
김형중 지음/신국판/184쪽/값 11,000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논쟁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는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역과 학파와 종파를 아우르는, 깨달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
불교학연구회 엮음/신국판/452쪽/값 25,000원

생활 속의 명상 안내서!
명상 매뉴얼
명상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누구라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수록!
명상도 과학적,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배철진 지음/국판 양장/296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찬란한 고려문화의 현재적 의미 찾아

특별전 '대고려 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국립중앙박물관 12. 4 ~ 2019. 3. 3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1100년 전 우리의 이름이었던 '고려(918~1392)', 그리고 오늘의 이름(KOREA)이 된 그 시절은 많은 것들을 남겼다. 찬란한 문화 속에서 빛났던 미술은 '고려'라는 이름이 지닌 역사적 의미처럼 우리의 오늘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었다. 그 도전이 남긴 고려미술을 총망라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12월 4일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대고려 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을 개최한다.

과거의 장르별 전시와는 달리 고려미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은 2017년 12월 국립제주박물관(삼별초와 동아시아, 나주박물관 순회전시) 특별전을 시작으로 고려를 주제로 이어진 전시들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대 규모의 특별전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아미타여래도(14세기, 이탈리아 동양예술박물관 소장)', '건칠희랑대사좌상(고려 930년경, 보물 제999호 해인사)' 등 고려의 삶과 정신의 중심이었던 불교의 중요 미술과 '은제 금도금 주자와 받침(고려 12세기, 보스턴박물관)' 등 국외(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4개국 11개 기관을 포함한 45개 기관이 소장한 고려문화재 450여 점이 전시된다. 아울러 왕건상 등 북한 소재 고려 유물도 함께 선보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에 북한의 왕건상이 함께 전시된다면 천 년의 세월을 건너 한 나라의 임금과 그 임금의 스승이 다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희랑대사는 고려 건국 과정에서 태조 왕건을 도왔으며 고려 건국 이후에는 왕건의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인물이다.

475년간 이어지면서 찬란한 문화를 이룩했던 고려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를 이어 과거의 전통을 융합했고,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이루었다. 세계사적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릴만큼 예성항에는 많은 외국인이 출입했고, 이 시기는 동북아시아의 송 · 요 · 금이 교체되는 격동기였다. 고려미술에 담긴 우수성과 도전성에 담긴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은 네 가지 이야기로 구성됐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출발한다. 밖으로 열려 있던 사회, 고려의 바다와 육로를 통해 드나든 다양한 물산과 교류 양상을 살펴본다.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다채롭고 화려한 미술이 개경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고려 왕실은 최대의 미술 후원자로, 왕실의 주도하에 회화 · 금속공예품 · 나전칠기 · 자기 등 최고급 소재로 새로운 차원의 물질문화를 창조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려 사찰로 가는 길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유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이 평화적으로 공존했다. 이 가운데 국교라는 큰 지지기반에서 이룩한 불교문화는 정점을 이루며 이후 1100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우리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낼 만큼 오랜 출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려의 사찰에서는 사경을 통해 경전을 조성했다. 필사의 전통에서 인쇄로의 전환은 세계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쇄문화는 종교의 성전(聖典)을 매개로 꽃피웠다. 대장경에는 불교의 성전이라는 신앙적 의미뿐 아니라 지식을 체계화하고 소통하고자 했던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다. 대장경을 전시함으로써 인류의 지혜와 소통의 노력이 현재도 유효함을 보여준다.

다음은 불교미술의 정점인 고려 불상과 불화다. 신앙의 중심인 불상과 불화에도 고려 문화의 독자성과 다원성이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다원적으로 전개된 고려의 불상, 불상에 모신 복장물(腹藏物)과 섬세한 직물은 동북아시아 불교 의례의 중요한 자료다. 청양 장곡사의 약사여래좌상은 고려를 대표하는 보물이다. 10미터가 넘는 발원문에는 삶에서 병마가 비껴가기를 기원했던 칠백 년 전의 서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차가 있는 공간', 고려의 다점(茶店)이다. 다점은 현대의 카페처럼 고려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했던 곳이다. 이번 전시에는 차가 고려인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에 주안점을 두어, 관람객이 시각과 후각, 청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차를 마시던 공간에서 바라보았을 경치와 귓가를 스쳤을 소리, 실제 차를 덖는 향기를 전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차는 국가와 왕실, 사찰의 각종 의례와 행사에서 그리고 고려인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존재했던 문화로, 다점에서 고려의 수준 높은 지식과 문학, 예술 그리고 다양한 향유 계층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고려의 찬란한 기술과 디자인'으로, 예술성의 정점을 이룬 공예 미술의 아름다움이다. 고려의 미술은 도전의 역사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재료와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은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북아시아가 이룬 공통적인 문화 성취다. 그러나 기술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의 결정이 위대한 예술을 창조했다. 뛰어난 기술을 지녔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주도하는 공장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었던 포용적 기반에서 고려의 찬란한 미술은 꽃필 수 있었다. 고려청자가 당시의 신기술에 대한 고려인의 도전을 보여준다면, 정교하고 섬세한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나전칠기의 치밀함은 예술의 정점이다. 고려인들은 기술과 미감, 취향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뛰어난 미술품을 만들었다. 그 결과 한국 문화는 더욱 풍부해지고 개성 넘치는 또 하나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고려가 이룬 문화와 예술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융합과 포용, 통합으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성과가 오늘의 삶을 이루고 있다고 볼 때, 이번 특별전은 앞으로 또 다른 1100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고려가 남긴 유물을 통해 사라진 중세의 왕조가 아닌 고려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2077-9000.



①



②



③

① 불감(고려 14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② 가장 오래된 화엄경 목판(고려 1098년, 해인사 소장) ③ 아미타여래도(고려 14세기, 이탈리아 동양예술박물관 소장)

고려 건국 1100주년 특별전 대미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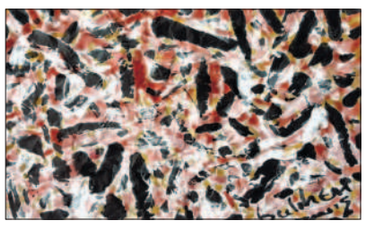
고려 미술 총망라 450여 점 전시 최대 규모

북한 유물 '왕건상' 등 유치 추진도

형상 없는 형상을 그리다

김성배 초대전 '선묵도'

불일미술관 12. 21~27



무제, 종이에 채묵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제2관에서 김성배 작가의 초대전 '선묵도' 展을 개최한다.

그 동안 선서화 전시를 통해 대중과 만나왔던 김성배 작가가 이번에는 선서화를 벗어나 선묵화로 대중을 만난다.

"禪道仙이요 宣圖善이라"고 말하는 김 작가는 소리글자인 한글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섭수하는 의미를 담은 제자(題字)로서의 〈선묵도〉를 주제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작가는 기존에 진행해 오던 선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씨로서 표현한 '선서화'에서 그림이며 동시에 묵(默)으로서의 '선묵화'로 상 아닌 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금강경〉 사구게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으로서의 선묵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시(詩)와 서(書)가 사라진 무상(無相)으로서의 심상을 자유롭게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書)와 묵(墨)은 둘이 아님을 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위의 사구게는 〈금강경〉에 나오는 대표적 사구게 가운데 하나로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세상 만물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일 뿐 참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아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면 누구나 부처의 지혜광명을 얻게 된다는 말로서, 이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본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김 작가의 전시는 선서화의 틀에서 벗어나 형상 없는 형상의 세계를 선보임으로써 또 다른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한다. (02)733-5322. 박재완 기자

한옥갤러리 불화 · 민화 공모전

접수 2019. 1. 1~15

발표 2019. 1. 30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부설 갤러리한옥이 불화와 민화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불교미술과 민화의 저변을 넓히고 신진작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선정자는 2019년 1월 30일 개별 통보한다.

제출서류는 공모지원서 1부, 포트폴리오 1부, 이력서, 작품설명서, 전시계획서와 작품이미지(5점 내외)이다. 지원 자격엔 제한이 없다. 대상엔 소정의 지원금과 초대전 개최의 기회가 주어진다.

최우수상은 초대전 개최, 우수상은 대관료 50% 감면, 특선은 대관료 10% 감면이 주어진다.

접수 방법은 한국미술사연구소 홈페이지 galleryhanok@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02)3673-3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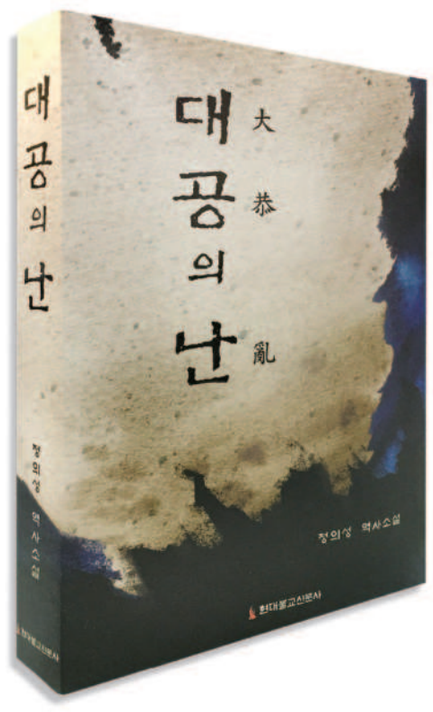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전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法의 상속자 되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각묵 스님, 초기 논서 '위방가' 한국 첫 완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원음인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의 핵심 주제 18가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모은 〈위방가〉가 한국에서 처음 완역 · 발간됐다.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 스님과 역자 각묵 스님은 11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방가(分析論)〉를 한국불교 최초로 완역했다"고 밝혔다.

〈위방가〉는 불교의 경 · 율 · 논 삼장 중 논장으로, 정확하게 빠알리 논장 칠론(七論)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

〈위방가〉는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 지혜, 법이라는 4가지 주제로 나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초기불교 교학의 토대가 되는 온(蘊) · 처(處) · 계(界) · 제(諦) · 근(根) · 연(緣), 즉 5온 · 12처 · 18계 · 4제 · 22근 · 12연기를 주제로 분석하고 초기불교 수행의 핵심인 4념처 · 4정근 · 4여의족 · 7각지 · 8정도를 다룬다.

또한 4선(禪)4무량(無量)과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체득되는 4무애해체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에는 제16~18장부터 '마띠까(論母)' 라고 부르는 논의의 주제를 먼저 밝히고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을 관통하는 이런 주제들을 세세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내고 있는 것은 〈위방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선 수행에 관련 일부를 살펴보자.

"여기서 무엇이 '바른행실' 인가? 몸으로 범하지 않고, 입으로 범하지 않고, 몸과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이것이 바른행실이다. 계를 통한 단속도 모두 바른 행실이다.〈중략〉 부처님이 나무라신 이런저런 그릇된 생계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를 일러 바른 행실이라고 한다." (제12장 禪위방가 中)

선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비구는 무엇이며, 어떤 행동 영역을 가지는 지, 어떤 것이 바른 행실인지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를 이야기하는 한국의 간화선 수행과는 차이점이 있다.

빠알리 七論 중 두 번째

교학 · 수행 핵심주제 분석

다량 해제 · 주석 이해 도와

앞서 '담마상가니' 일독 후

'위방가' 읽으면 이해 높아



〈위방가〉를 완역한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사진 오른쪽〉과 연구원장 대림 스님〈사진 왼쪽〉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0여 페이지의 해체와 총 700여 개의 주해가 수록된 점도 주목할만 하다.

하지만 〈위방가〉는 쉽지 않은 논서이다. 논장 자체가 법의 전문가가 돼야 하는 승가를 위한 전문적 가르침이어서 법의 구조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방가〉와 같은 논장들을 주목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역자 각묵 스님은 "〈위방가〉는 부처님 재세시의 승가가 담마와 아비담마 즉 법(法)과 승법(勝法)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서"라면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제자는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고 했다. 법의 연구야말로 승가가 해야 할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앞서 발간한 〈담마상가니〉를 이해하고 〈위방가〉를 접할 것을 조언했다.

스님은 "논장 첫 번째인 〈담마상가니〉가 논장의 논의의 주제인 '아비담마 마띠까' 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라면 두 번째인 〈위방가〉는 경장의 방법과 논장의 방법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이라면서 "〈담마상가니〉를 읽고 〈위방가〉를 접하면 이해가 한결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선지식 환성 지안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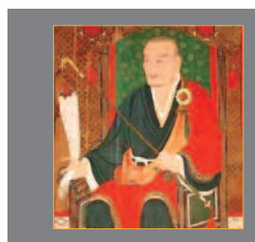
영축총림 통도사 12월 14일 학술대회 개최

서산휴정의 4세손으로 통도사에서 법을 펼친 환성 지안(喚醒志安, 1664~1729)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14일 오후 2시 경내 해장보각에서 '한국불교 법맥의 원류 환성 지안과 통도사' 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발표논문으로는 △환성 지안의 종통 계승과 선교 융합(김용태 동국대 HK교수) △환성 지안과 백련암의 문학적 관련 양상(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조선후기 통도사와 환성 지안(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가 발표된다.

첫 발표인 '환성 지안의 종통 계승과 선교 융합' 에서는 환성 스님의 생애와 활동, 청허계 편양파 계보와 종통, 선과 교의 조화와 융합 문제를 다루며, '환성 지안과 백련암의 문학적 관련 양상' 에서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가지산권 문화권역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 지역에서 배출한 작가와 작품의 분포도를 살필 예정이다.


환성 지안 스님 진영

세 번째 발표인 '조선 후기 통도사와 환성 지안' 에서는 통도사 중창과 환성 스님의 유물, 스님의 유풍 계승 문제를 검토한다.

통도사는 "통도사와 환성 지안 스님의 깊은 유대관계를 확인하고, 조선후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불교 법맥의 원류로서 스님의 위상을 재조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종풍을 확립하고 수행기풍을 선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골굴사 · 중국의 석굴 비교한다면

한국미술사硏, 12월 8일 학술대회

경주 골굴사 석굴과 중국석굴을 비교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사학회는 12월 8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골굴석굴과 중국석굴'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골굴석굴과 운강석굴 6굴' 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주요 발표로는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이 '용문석굴 고양동과 골굴석굴' 을,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천룡산 석굴과 골굴석굴' 을, 주수완 고려대 前 교수가 '공현석굴 1굴과 골굴석굴' 을, 강삼혜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북향당산석굴 북대굴과 골굴석굴'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신은미 인천이민사박물관 관장,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역사교과서 불교서술 문제점은

조계종 불교사회硏, 12월 5일 세미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208호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검토 세미나' 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불교 관련 서술의 오류를 살피고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내용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역사교과서 불교관련 서술의 중요성' 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왕호 대일고 교사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 을, 고기홍 동대부속 영석고 교사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불교서술체재와 내용'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권나리 동국대부속고 교사, 신선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법주사 · 대련사 · 남장사 대형불화 보물 지정

문화재청 11월 27일 공고해

의식구 고려시대 청동북도

수종사사리탑 보물 승격 예고

군위 법주사 등 3곳 사찰의 괘불이 보물로 잇달아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 '군위 법주사 괘불도' 를 비롯한 괘불과 고려 시대 불교 의식구, '신라의 미소' 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등 6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괘불도 3건은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에 소장된 대형 불화의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밀조사 사업 대상에 포함된 작품이어서 의미가 크다.

보물 제2005호 '군위 법주사 괘불도' 는 1714년(숙종 40년) 5월 수화승 두초 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괘불이다. 총 16폭의 비단을 이었고 높이 10m에 달하는 장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보물로 지정된 (사진 왼쪽부터)군위 법주사 괘불도,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담채기법의 색감과 세밀하고 정교한 필선, 다양한 문양 등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연꽃을 들고 있는 주존불의 모습은 조선 후기 불화의 새로운 도상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제2006호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는 1750년(영조 26년) 축명 · 사혜 등 4명의 화승이 조성했다.

이 괘불도는 유례가 드문 오존(五尊)으로 구성된 작품이자 18세기 중엽 충청도 지역의 괘불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써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보물 제2007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는 야외에서 거행하는 불교의식인 영산재(靈山齋)에 사용된 불화로, 1788년(정조 12) 조선 후기 대표 불화승인 상겸의 주도로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와함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월 28일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사리탑으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은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됐던 점에서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 등 자매품 다양)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㉓ 재소자 유지동

신발 한 켤레가 부른 致死… 온정과 구명으로 새 삶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제주에서 만난 한 재소자가 떠오른다. 유지동 씨다. 나는 유 씨가 정말 밉지 않았다. 유 씨는 딸 운동화 값을 마련하던 중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유 씨와의 인연은 다른 재소자 일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시작됐다. 나는 양승부 변호사에게 유 씨의 사연을 들었다. 양 변호사는 당시 유 씨의 무료변론을 맡고 있었다.

전북 무주가 고향인 유 씨는 1972년 제주로 들어왔다. 유 씨는 제주서 아내를 만나 3남매를 낳았다. 유 씨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 유 씨는 6년의 병고 끝에 생을 마감한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딸마저 병으로 잃었다. 홀로 남은 유 씨는 어린 두 남매를 위해서 이를 악물었다. 유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든 막노동도 마다않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 유 씨에게 1986년 9월, 큰 딸 유문임(당시 14세) 양이 다니는 학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문임이가 3일째 무단 결석했다'는 담임선생님의 전화였다. 유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교 시간 무렵, 유 씨는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유 씨의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며 귀가했다. 유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딸에게 버럭 화를 냈다. 유 양은 왈칵 눈물을 쏟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자신의 운동화를 내밀었다.

신고 있어도 발이 다 보이는 운동화였다. 너무 낡아서 다 떨어진 딸의 운동화를 본 유 씨는 가슴이 무너졌다. 문임이는 남학생들이 놀려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문임이는 아버지가 단칸방 월세를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마 아버지에게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일은 학교 가자, 문임아."

유 씨는 내일까지 꼭 신발을 사주기로 딸과 약속했다. 운동화 한 켤레 값은 오천 원. 유 씨 수중에는 단 오천 원이 없었다. 유 씨는 지난 번 건넌방에 사는 이웃에게 3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건넌방 이웃은 폐결핵을 앓는 젊은 남자였다. 유 씨는 건넌방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밤늦게까지 남자를 기다린 유 씨는 귀가한 그를 붙잡고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채근했다. 남자는 "돈을 받으러 오기 전 미리 말을 해줘야 빌려서라도 준비할 것 아니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유 씨는 절박한 나머지 무작정 매달렸다. 뒤쫓아 들어온 유 씨를 보고 남자는 신경질을 냈다. 두 사람은 실랑이를 하며 다투기 시작했다. 어려운 살림이라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이었다. 유 씨를 밀친 남자가 하필이면 찬장 쪽으로 넘어졌다.



유지동 씨는 딸 운동화 한 켤레 때문에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안타까운 유 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각계서 유 씨 가족을 위한 성금이 모였다. 무기수 오동규 씨를 대신해 성금을 전달한 삼중 스님이 유 씨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

딸 운동화 값 구하려다 살인
사연 알려져 각계 성금 답지
구명운동… 1년 6개월 뒤 출소
1988년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남자는 깨진 유리파편 때문에 뇌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유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10년형이 구형된 유 씨는 양 변호사의 무료변론으로 정상참작을 받아 3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유 씨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제주에 있는 남매와 떨어져야 했다. 문임이는 아버지가 옥살이를 하면서부터 학교를 그만뒀다. 유 씨는 두 어린 남매를 돌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바로 그때 유 씨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인연이 있는 불자가 유 씨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미용사 양신순 씨를 유 씨에게 소개했다. 양 씨의 따뜻한 도움으로 유 씨 남매는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문임이는 낮에는 미용기술을 배우고, 밤엔 동려야간학교에 다니며 동생 유성훈(당시 10세) 군을 돌봤다.

이와 함께 나는 유 씨를 위해 구명운동에 나섰다. 나는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유 씨와 어린 남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렸다. 1987년 12월 24일 '"아빠만 오시면 고무신도 좋아요"' 제하 기사가 보도된 이후, 유 씨 가족을 위한 각계의 온정 손길이 줄을 이었다. 제주지역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생활비, 학비, 쌀, 운동화 등을 신문사로 보내온 것이다.

유 씨의 사연이 사회 전반에 알려지자, 법무부는 유 씨를 광주에서 제주교도소로 이감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유 씨는 복역 1년 6개월 만에 출소했다. 유 씨는 1988년 5월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으로 다시 아이들과 지낼 수 있게 됐다.

출소한 유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속죄라도 하듯이 무리해 일을 했다. 지병인 허리병이 도진 유 씨는 일을 나갈 수 없었다. 유 씨는 또다시 좌절했다.

그때쯤 유 씨의 이야기가 교도소에도 퍼졌다. 영등포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몸 져 누운 유 씨에게 또 다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수가 된 오동규 씨였다. 오 씨는 교화위원인 나를 만나 지은 죄를 참회하는 모범수였다. 오 씨는 내게 영치금 100만원을 유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스님 절에 다니는 신도가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준 영치금입니다. 기약 없는 무기수인 제게 희망처럼 느껴졌지요. 저보다 더 어려운 유지동 씨에게 이 돈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 씨가 전한 영치금은 정말로 유 씨에게 희망이 됐다. 출소한지 4년이 경과한 어느 날, 유 씨는 내가 있는 부산 자비사로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다.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드디어 방을 얻었습니다, 스님. 작고 초라한 방이지만 우리 세 식구 나란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꼭 저희 집에 한 번 들러주십시오."

정리=김지원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㉑ 초삼 스님 · 소공거사



'왜 푸른 산에 사느냐 묻거든 그저 웃지요.'

하는 옛 시가 생각난다. 오래전 유명한 스님도 열반하셨고, 얼마 전 많은 여자들을 설레게 했던 유명한 모 배우도 갔다.

"연기(演技)하며 살다 / 연기(煙氣)되어 보니 / 연기(緣起)로 남는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 강물이 흐르며 내는 소리 / 도망간 입맛을 찾아야겠다"

다들 간다는데 안가는 놈은 누구냐.

이 글을 쓰기 전에 거사님이 살았던 전향원(향기밭을 가는 집)에 다녀왔다. 겨울이 오고 있는지 화단의 나무는 이미 마당 가득 낙엽으로 쌓인 게 세속을 벗어난 이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한 때 무수한 길들 사이에서 진정한 내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잠깐 들렀던 곳이 전향원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거사님과의 마주침 자체가 이미 길이었음을 거사님은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평범한 어느 일상이 지나가는 초학자의 길에 긴 여운의 화두와 빛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탁! 탁!



2019 불교카렌다 주문제작 접수중!

삼보불교카렌다의 홈페이지에서 E북이나 pdf 카다로그로 카렌다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민족의 산하


미소(성 안내는 그 얼굴)


법음이 깃든 산사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세계불교 명찰


심우도

독판(맞춤형) 카렌다 주문제작 접수중!!!
기성 카렌다가 아닌 각 사찰만의 독특한 독판(맞춤형) 카렌다를 제작하시려면 지금 전화주세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 www.samboca.com

Daum 이나 NAVER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클릭하세요.